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북한사회변동 2018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 목차

### 제1장 / 연구 개요

1. 조사 목적	10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12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17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28

### 제2장 /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1. 서론	32
2. 의식주 생활실태	34
3. 월평균 지출과 가족생활	52
4. 주민생활과 정보화 추이	65
5. 평가와 시사점	71

### 제3장 / 시장화와 경제개혁 인식

1. 서론	76
2. 경제생활과 시장화	78
3. 경제개혁 인식	89
4. 평가와 시사점	95

### 제4장 /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

1. 서론	100
2. 북한 사회보장 제도 실태	103
3. 북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108
4. 평가와 시사점	116

### 제5장 / 총론


### 부록 / 설문지

## 표목차

〈표 1-1〉 조사의 표본	12	〈표 2-10〉 가족 내의 의사결정권	60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16	〈표 2-11〉 북한에서 경험해본 남한산 제품의 종류	64
〈표 1-3〉 성별, 연령별 분포	18	〈표 2-12〉 정보통신기기 보유와 이용률	68
〈표 1-4〉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19	〈표 2-13〉 인터넷 사용장소	70
〈표 1-5〉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거주지	21	〈표 3-1〉 장사경험 유무	81
〈표 1-6〉 응답자의 재북 학력수준 분포	22	〈표 3-2〉 주요 수입원	84
〈표 1-7〉 응답자의 재북 직업 분포	23	〈표 3-3〉 개인 고용 경험 여부	85
〈표 1-8〉 재북 당시 응답자의 당원 여부 분포	24	〈표 3-4〉 사교육 종류 및 비중	87
〈표 1-9〉 응답자의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25	〈표 4-1〉 북한 주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대처방법 (2018년)	104
〈표 1-10〉 응답자의 남한 친척의 유무 분포	26	〈표 4-2〉 북한 의료기관의 실태 (2018년)	105
〈표 1-11〉 응답자의 결혼 상태 분포	27	〈표 4-3〉 북한 노인의 주된 생활유지 방법 (2018년)	107
〈표 1-12〉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28	〈표 4-4〉 북한 장애인의 주된 생활유지 방법 (2018년)	107
〈표 2-1〉 식생활 양질의 비율	36	〈표 4-5〉 북한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	109
〈표 2-2〉 주식의 구성	38	〈표 4-6〉 북한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110
〈표 2-3〉 고기 섭취 횟수	39	〈표 4-7〉 북한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	112
〈표 2-4〉 의류 구매 횟수	42	〈표 4-8〉 북한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	113
〈표 2-5〉 의류 원산지	44	〈표 4-9〉 각 영역별 만족도 비교	114
〈표 2-6〉 의류 구입경로	46		
〈표 2-7〉 살림집 유형	49		
〈표 2-8〉 살림집 장만 경로	51		
〈표 2-9〉 북한주민 일상생활의 고민	56		

## 그림목차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35	〈그림 3-9〉 경제활동 자유에 대한 분야별 수요	92
〈그림 2-2〉 고기 섭취 횟수	40	〈그림 3-10〉 경제활동의 저해요인	93
〈그림 2-3〉 의류 구매 횟수	43	〈그림 3-11〉 경제발전 조건	94
〈그림 2-4〉 살림집 유형	49	〈그림 3-12〉 북한의 시장 달러환율, 쌀 가격 변화: 2012-2018	96
〈그림 2-5〉 살림집 장만 경로	52	〈그림 4-1〉 사회보장 전반적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114
〈그림 2-6〉 가계소득 지출구조	53	〈그림 4-2〉 영역별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115
〈그림 2-7〉 가계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54		
〈그림 2-8〉 자녀 사교육 경험	55		
〈그림 2-9〉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고민	58		
〈그림 2-10〉 북한 가족 내의 의사결정권	61		
〈그림 2-11〉 남한산 제품 경험의 유무	63		
〈그림 2-12〉 북한에서 경험해본 남한산 제품의 종류	65		
〈그림 2-13〉 북한에서 소유했던 집전화와 손전화	66		
〈그림 2-14〉 정보통신기기 보유와 이용률	69		
〈그림 3-1〉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평가대상연도 1994-1999)	79		
〈그림 3-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평가대상연도 2011-2018)	79		
〈그림 3-3〉 가족 중 공식, 비공식 경제활동 분포	81		
〈그림 3-4〉 공식적인 직장에서 가족의 총수입	83		
〈그림 3-5〉 장사 등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한 총수입	83		
〈그림 3-6〉 물품 및 자재 조달처	88		
〈그림 3-7〉 사경제활동의 애로사항 (1순위)	90		
〈그림 3-8〉 총수입중 뇌물 제공 비중	91		



제1장  
연구 개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1장 연구 개요

### 1. 조사 목적

기존의 많은 북한 연구는 권력 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적 또는 대안적 접근으로 최근 북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또는 기층 사회에서 지속되는 일상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및 행위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는 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념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해당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 모색을 위해,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 기층 사회에서 꿈틀대고 있는 수많은 작은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일상생활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인 변화를 포함해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전환 가능성을 연구하며,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사회변동은 북한 사회구조의 유의미한 변화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사회구조는 규범과 가치, 행위와 관계, 그리고 문화적 현상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규범의 변화, 행위의 유형 및 관계 패턴의 변화, 새로운 문화적 현상의 등장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사회변동의 속도와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의 변동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북한사회 변화가 어떤 미래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북한사회변동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일 것이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과제의 중요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북한사회의 폐쇄성에 기인한 연구의 장애물들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기준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북한사회변동 연구에 활용 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사회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도 추적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를 설계하여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편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사회의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를 측정하여 변동의 속도와 요인을 분석하고 변동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 지역별 생활수준,

정보화, 시장화의 양상, 경제행위의 다양성, 사회계층의 분화와 이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정보 등을 포함한다.<sup>1</sup>

##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의 사회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은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식사할 때 하루 몇 끼를 식사했습니까?” 또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형식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비록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질문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 북한주민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표 1-1〉 조사의 표본

(단위: 명)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탈북연도	4/6-6/2	6/13-7/16	5/20-7/7	5/22-7/6	6/10-8/8	6/8-8/6	7/20-8/31
2011	127						
2012		133					
2013			149				
2014				146			
2015					135		

1. 2018 북한사회변동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IRB No. 1807/001-004)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탈북연도	4/6-6/2	6/13-7/16	5/20-7/7	5/22-7/6	6/10-8/8	6/8-8/6	7/20-8/31
2016					3	132	
2017							84
2018							3
총 계	127	133	149	146	138	132	87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의 사회변동을 조사하려면 탈북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함께 2017년에 입국을 했다 라도 정보의 부족 또는 왜곡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보다 2016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사회의 실태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탈북 시점과 입국 시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억과 의식의 변형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표본의 구성을 조사연도 직전 연도에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제한하였다. 즉, 올해 2018년 조사의 표본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탈북한 후 남한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제한하였다.

이처럼 조사 표본의 탈북연도를 제한함으로써 표집 과정과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모집단의 규모가 축소되어 동일한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표집으로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입국자는 2,401명, 2011년 입국자는 2,706명, 2012년 입국자는 1,502명, 2013년 입국자는 1,514명, 2014년 입국자는

1,397명, 2015년 입국자는 1,275명, 2016년 입국자는 1,418명, 2017년 입국자는 1,127명, 2018년 입국자는 1,137명(잠정)이다.<sup>2</sup>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거나 조사 연구원이 직접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 전국의 하나센터 등 관계기관들 외에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연례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7년 동안 일곱 차례 실시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시계열적 데이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설문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의성과 보완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문항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설문 내용은 크게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실태, 정보·통신 환경 실태, 시장경제 활동과 소득 실태,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 사회보장 실태,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표 1-2>와 같다.

2018년 조사에서는 사회보장 실태 문항을 수정, 추가하였다. 사회보장 만족도와 함께 의료기관 실태, 노령연금과 폐질연금 수급여부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2018년 조사의 특이점은 올해 표본 수가 예년에 비하여 급감했다는

점이다. <표 1-1>에 따르면 예년 최소 120명을 상회하던 표본 수가 올해 87명으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전체 탈북자 수, 그리고 본 연구의 표본 모집 기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2018년 12월 기준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418명 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본 연구의 올해 조사대상년도인 2017년에는 1,127명으로 집계 되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전체 수 자체가 20% 급감하였음을 보여준다.

추가로 본 연구는 조사대상 범위를 입국년도 기준이 아닌 탈북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관계로 앞서 언급한 2017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1,127명 중 2017년 탈북하여 남한에 직행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만이 조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올해 연구의 표본 수 급감은 표본 모집 방법과 절차가 예년과 같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남한으로의 직행자 수의 급감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올해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의 경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전해진다. 압록강 접경지역 부근 철조망이 더욱 공고화 되었으며 보수작업이 확대되어 탈북의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이 한층 늘어났다. 또한 접경지역 경비 강화로 인해 탈북 브로커에 지불해야하는 비용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감청기, 전파차단기의 성능향상과 대량보급도 탈북이 다소 어려워진 이유로 꼽힌다.

2. 통일부, "통계자료-북한이탈주민정책"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검색일:2019년1월31일)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범 주	설문내용	
의식주, 정보·통신환경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식사횟수</li> <li>• 주식의 구성</li> <li>• 고기 섭취 횟수</li> <li>• 의류 구매 횟수</li> <li>• 의류원산지</li> <li>• 의류 주요 구매처</li> <li>• 인터넷 이용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림집 형태</li> <li>• 살림집 장만경로</li> <li>•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li> <li>• 살림집 장만 시기</li> <li>• 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품목</li> <li>• 소유한 정보통신 기기</li> <li>• 인터넷 이용 장소</li> </ul>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사회의 계층 구성</li> <li>• 지역의 빈부격차</li> <li>• 직업의 빈부격차</li> <li>• 월 평균 지출비용</li> <li>• 빈부격차의 발생요인</li> <li>• 일상생활의 고민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별 소속 계층에 대한 주관적 평가</li> <li>• 공식 수입과 비공식 수입의 격차</li> <li>• 수입의 주요 지출내역</li> <li>• 식생활 형편</li> <li>• 사교육 경험과 분야</li> <li>• 총지출에서 뇌물의 비중</li> </ul>
시장경제 활동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수입 원천</li> <li>• 자재/원료의 원산지</li> <li>• 시장경제 활동의 애로사항</li> <li>• 고용노동의 실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화의 대상</li> <li>• 경제침체의 이유</li> <li>• 국가발전을 위한 필요 요소</li> <li>• 소비 행동</li> </ul>
사회보장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 만족도</li> <li>• 의료기관 이용 실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연금 수급 여부</li> <li>• 폐질연금 수급 여부</li> </ul>

###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 1) 성별, 연령별, 탈북-입국기간의 특징

먼저 성별 구성을 보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계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의 여성 비율은 그보다 낮다. 조사대상 중 여성의 비율이 2018년 약 49%, 2017년 47%, 2016년 62%, 2015년 61%, 2014년 66%,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56%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4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 통계자료의 연령대별 입국 현황에서 20-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조사 역시 20대가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30대, 50대, 40대 순으로 기존 연도와 연령대별 표본수의 구성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10대가 4명으로 북한사회변동 조사가 시작 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였다.

〈표 1-3〉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대	0 (0.0)	0 (0.0)	1 (33.3)	2 (67.7)	2 (66.7)	1 (33.3)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3 (75.0)	1 (25.0)
20대	22 (51.2)	21 (66.7)	24 (52.2)	22 (47.8)	15 (33.3)	30 (66.7)	16 (36.4)	28 (63.6)	14 (26.9)	38 (73.1)	24 (51.1)	23 (48.9)	14 (42.4)	19 (57.6)
30대	11 (47.8)	12 (52.2)	17 (58.6)	12 (41.4)	13 (46.4)	15 (53.6)	20 (44.4)	25 (55.6)	16 (50.0)	16 (50.0)	24 (61.5)	15 (38.5)	11 (52.4)	10 (47.6)
40대	10 (32.3)	21 (67.7)	11 (28.9)	27 (71.1)	12 (30.8)	27 (69.2)	13 (35.1)	24 (64.9)	15 (44.1)	19 (55.9)	16 (59.3)	11 (40.7)	5 (50.0)	5 (50.0)
50대	6 (35.3)	11 (64.7)	7 (43.8)	9 (56.3)	6 (31.6)	13 (68.4)	6 (37.5)	10 (62.5)	7 (43.8)	9 (56.3)	5 (29.4)	12 (70.6)	5 (26.3)	14 (73.7)
60대 이상	7 (53.8)	6 (46.2)	0 (0.0)	4 (100.0)	2 (13.3)	13 (86.7)	2 (66.7)	1 (33.3)	1 (25.0)	3 (75.0)	1 (50.0)	1 (50.0)	0 (0.0)	0 (0.0)
합계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8 (43.7)	49 (56.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연령별 그리고 전체 남녀의 성비를 나타내며, 합이 100이 넘는 경우는 반올림 오차(rounding-error)에 해당한다. 2011년과 2012년 조사의 연령대에 대한 코딩 오류 정정으로 연령 대별로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다.

응답자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조사 대상자 전체는 2011년에 탈북하여 2011년에 입국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2012년에 입국하였으며 2명은 2013년에 입국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는 149명 전원이 2013년에 탈북하여 이 중 141명이 2013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8명은 2014년에 입국하였다. 2015년 조사에는 전원이 2014년에 탈북하여 이 중 129명이 2014년

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17명이 2015년에 입국하였다. 2016년 조사에는 135명이 2015년에 3명이 2016년에 탈북하였다. 이 중 99명이 2015년에 입국하였으며 39명이 2016년에 입국하였다. 2017년 조사의 경우 2016년도에 탈북한 조사대상 132명 중 19명만이 2017년에 입국하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총 87명 중 84명이 2017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 68명이 입국하였고 19명은 2018년에 입국하였다.

〈표 1-4〉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조사연도 소요기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개월 미만	0.0	0.0	3.4	0.0	1.4	1.5	2.3
1개월	1.6	0.0	26.8	30.8	21.0	27.3	27.6
2개월	18.1	29.3	48.3	29.0	22.5	32.6	21.8
3개월	48.8	47.4	8.1	14.4	15.2	12.1	10.3
4개월	14.2	8.3	2.0	6.8	14.5	8.3	20.7
5개월	6.3	5.3	4.7	2.1	15.2	8.3	5.7
6개월	4.7	1.5	2.7	1.4	2.9	2.3	4.6
7개월	0.8	3.8	2.0	0.7	1.4	0.8	1.1
8개월	2.4	1.5	1.3	0.0	0.7	3.8	0.0
9개월	0.8	0.8	0.7	1.4	1.4	2.3	4.6
10개월	1.6	2.3	0.0	3.4	0.7	0.0	0.0
11개월	0.8	0.0	0.0	0.0	1.4	0.8	0.0
무응답	0.0	0.0	0.0	0.0	1.4	0.0	0.0
평균(개월)	3.57	3.37	2.26	2.49	3.33	2.82	3.06
전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응답자들의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은 각각 평균 3.57개월(표준편차=1.74), 3.37개월(표준편차=1.72), 2.26개월(표준편차=1.61), 2.49개월(표준편차=1.99), 3.33개월(표준편차=2.353), 2.82개월(표준편차=2.116)이었다. 2018년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탈북-입국 기간은 3.06개월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표준편차는 2.330이었다. 달리 말하면 2018년 조사대상자의 81.8%가 탈북 후 입국까지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이 비율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과 2017년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각각 82.7%, 76.7%, 86.1%, 84.2%, 60.1%, 81.8%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의 경우 탈북 후 입국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이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결심한다면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 안에 남한으로 입국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고향, 학력, 직업별 특징

북한이탈주민들 탈북하기 전 최종거주지는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강도와 함경북도 출신으로, 2018년도의 경우 이들 지역 출신은 82.8%에 이른다. 통일부 자료(2018년 12월 말 기준)에 의하면 함경북도 출신이 60.0%, 양강도 출신이 16.3%, 함경남도 출신이 8.7%이다. 모집단 자체에서 함경북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양강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2018년의 경우 양강도 출신의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 편중 현상은 최근의 탈북 행위가 구조적 여건이 수월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5〉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거주지

(단위: 명)

북한의 출신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양	0	1	3	3	5	2	2
개성	0	0	0	0	0	1	0
남포	1	0	2	1	2	1	1
평안남도	0	2	4	3	2	0	2
평안북도	1	6	0	3	1	1	5
함경남도	14	11	9	5	4	6	4
함경북도	65	51	53	64	58	33	20
자강도	0	0	1	0	0	0	0
양강도	39	58	72	60	63	84	52
황해남도	3	0	1	1	0	4	1
황해북도	3	1	2	4	0	0	0
강원도	1	2	2	2	3	0	0
무응답	-	-	-	-	-	-	-
합계	127	133	149	146	138	132	87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았다. 2012년 조사부터 응답자의 65.4%, 71.4%, 61.7%, 61.0%, 74.6%, 72.0%, 73.6%가 고등중학교 출신들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약 10.2%, 16.5%, 13.4%, 19.9%, 13.0%, 7.6%, 5.7%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 자료의 2018년 12월 기준 전체 입국자 재북 학력 현황을 보면 고등중학교가 69.5%, 전문대 9.9%, 대학 이상 6.8%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통일부의 전체 모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2018년의 조사에서는 대학교 출신 응답자 비율이 5.7%로 전년도 조사 7.6%에 이어 재차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표 1-6〉 응답자의 재북 학력수준 분포

(단위: %)

교육수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학교	10.2	16.5	13.4	19.9	13.0	7.6	5.7
전문학교	18.1	11.3	21.5	16.4	11.6	17.4	13.8
고등중학교	65.4	71.4	61.7	61.0	74.6	72.0	73.6
인민학교	3.2	0.0	2.0	2.1	0.7	2.3	6.9
무학	1.6	0.8	0.0	0.7	0.0	0.8	0.0
무응답	1.6	-	1.3	-	-	-	-
전 체	125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응답자 중 노동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았다. 재북 직업이 노동자였다는 응답자들은 2012년 이후 각각 37.0%, 31.6%, 30.9%, 26.2%, 22.5%, 43.9%, 32.2%로 2018년 노동자 출신은 이전년도 조사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농민, 가정부인, 장사, 사무원의 비율은 매년 73.6%, 75.2%, 74.3%, 72.4%, 68.1%, 74.2%였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72.4%로 집계되었다. 전문가나 외화벌이 일군 비율은 상대

적으로 낮았고 특히 장사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0%를 기록하였다.

〈표 1-7〉 응답자의 재북 직업 분포

(단위: %)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노동자	37.0	31.6	30.9	26.0	22.5	43.9	32.2
농민	8.7	3.8	7.4	4.8	9.4	3.8	11.5
사무원	4.7	9.8	12.1	8.9	10.9	6.1	6.9
전문가*	7.1	8.3	3.4	5.5	7.2	7.6	0.0
학생	6.3	6.0	7.4	4.8	4.3	2.3	13.8
군인	3.9	4.5	4.7	4.8	8.0	5.3	3.4
외화벌이 일군	2.4	2.3	0.0	4.1	2.9	3.8	0.0
장사	11.1	13.5	4.7	20.5	12.3	9.8	0.0
가정부인	11.1	16.5	18.8	11.6	13.0	10.6	21.8
무직 및 기타	6.3	3.8	10.1	8.2	9.4	6.8	10.3
무응답	1.6	-	0.7	0.7	-	-	-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 전문가에는 교원, 의사, 기술자 등이 포함됨

노동당 당원이 아니었다는 응답자들은 2012년 이후 각각 84.3%, 85.7%, 85.2%, 81.4%, 81.2%, 80.3%, 83.9%로 조사되었다. 2012년 조사 대상자 중 당원이라고 응답한 18명의 직업은 노동자 7명, 사무원 2명, 군인 3명, 그외 전문가, 학생, 외화벌이 일군, 가정부인 등이 각 1명씩이었고 무직 혹은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명이었다. 2013년 조사 대상자 중 당원 19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사무원 6명, 노동자 5명, 전문가 2명, 군인 2명, 농민, 학생, 장사, 가정부인 등이 각 1명씩이었다. 2014년에는

노동자 7명, 사무원 4명, 군인 3명, 학생 2명, 농민, 전문가, 장사, 가정부인 등 각 1명씩 총 20명이 당원이었다. 2015년에는 노동자 10명, 사무원 5명, 전문가 4명, 군인 2명, 외화벌이 일군 1명, 장사 2명, 가정부인 2명 총 26명이 당원이었다. 2016년 조사에서는 노동자 5명, 농민 3명, 사무원 8명, 전문가 1명, 학생 1명, 군인 5명, 가정부인 3명 총 26명이 당원이었다. 2017년 조사에는 전체 당원 24명 중 노동자 11명, 농민 1명, 사무원 3명, 전문가 2명, 학생 2명, 군인 3명, 외화벌이 일군과 가정부인 각 1명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2018년도 조사결과 전체 12명의 당원의 직업구성은 노동자 4명, 농민 2명, 사무원 3명, 학생, 군인, 가정부인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표 1-8〉 재북 당시 응답자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당원여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원	14.4	14.3	13.4	17.9	18.8	18.2	13.8
후보당원	0.0	0.0	0.7	0.7	0.0	0.8	0.0
비당원	84.3	85.7	85.2	81.4	81.2	80.3	83.9
무응답	1.6	-	0.7	0.7	-	0.8	-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 3) 탈북 후 북한소식 인지 및 남한 친척의 유무

탈북 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이동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탈북 후 북한 소식을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2012년 조사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2015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하여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다시 증가하였지만 이후 2017년과 올해의 조사에서는 가파르게 하락하여 2012년도의 최저 수치보다도 하회하였다. 거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2012년 조사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다가 2015년 조사에서 증가한 양상을 보였지만, 2016년과 2017년 조사에서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19.7%, 2013년 22.6%, 2014년 24.8%, 2015년 19.3%, 2016년 26.1%, 2017년 20.5%, 2018년 19.5%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거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21.3%, 2013년 20.3%, 2014년 17.4%, 2015년 25.5%, 2016년 23.2%, 2017년 23.5%, 2018년 17.2%로 조사되었다.

〈표 1-9〉 응답자의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북한소식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9.7	22.6	24.8	19.3	26.1	20.5	19.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9.1	57.1	57.7	55.2	50.7	56.1	63.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1.3	20.3	17.4	25.5	23.2	23.5	17.2
무응답	-	-	-	-	-	-	-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일반적으로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탈북자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탈북하기 전 남한에 거주하는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2012년 62.2%, 2013년 65.4%, 2014년 69.1%로 지속 증가 후 2015년 41.8%로 감소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60.9%로 증가하여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지만 2017년 51.5%로 감소하였고 올해 2018년 조사에서는 이전년도와 비슷한 50.6%를 기록하였다.

〈표 1-10〉 응답자의 남한 친척의 유무 분포

(단위: %)

남한 친척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없다	37.8	34.6	30.9	58.2	39.1	48.5	49.4
있다	62.2	65.4	69.1	41.8	60.9	51.5	50.6
무응답	-	-	-	-	-	-	-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1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현재의 결혼 상태를 묻는 항목에는 결혼(동거 포함), 미혼, 이혼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조사에서 미혼의 응답자들은 2012년보다 8.1% 감소한 37.6%였으며, 결혼은 9.3% 증가한 53.4%였다. 이혼한 북한이탈주민들도 9.0%에 이르렀다. 2014년에는 미혼이 30.9%, 결혼이 55.0%였다. 2015년에는 미혼이 더욱 증가하여 39.0%였으며, 결혼은 42.5%로 감소한 반면 이혼은 17.8%로 증가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도 미혼이 증가하여 42.0%였으며, 결혼은 47.1%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이혼은 2015년보다 감소하여 10.9%였다. 2017년의 조사에서는 미혼과 결혼이 각각 40.2%, 45.5%로 2016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혼의 경우 13.6%로 2012년 대비 4.1%가 증가하여 그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2018년 조사에서는 미혼 50.6%, 결혼 41.4%로 그간의 추세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이혼의 경우는 5.7%로 역대 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표 1-11〉 응답자의 결혼 상태 분포

(단위: %)

결혼상태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혼	45.7	37.6	30.9	39.0	42.0	40.2	50.6
결혼(동거포함)	44.1	53.4	55.0	42.5	47.1	45.5	41.4
이혼	9.5	9.0	14.1	17.8	10.9	13.6	5.7
무응답	0.8	-	-	0.7	-	0.8	-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응답자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자녀의 수를 조사하였다. 〈표 1-12〉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47.3%, 2013년 56.4%, 2014년 57.0%, 2015년 56.8%, 2016년 52.1%, 2017년 55.3%, 2018년 43.6%의 응답자들이 1명 또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는 각각 12가구이며, 2014년 조사에서는 19가구, 2015년 조사에서는 26가구, 2016년 조사에서는 13가구, 2017년 조사에서는 18가구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가 15가구였다.

〈표 1-12〉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자녀의 수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명	24.4	38.4	34.2	39.7	43.5	43.2	52.9
1명	27.6	32.3	27.5	35.6	33.3	36.4	24.1
2명	19.7	24.1	29.5	21.2	18.8	18.9	19.5
3명	7.1	4.5	6.7	2.1	4.3	0.8	3.4
4명	1.6	0.8	1.3	1.4	-	0.8	0.0
무응답	19.7	-	0.7	-	-	-	-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조사를 진행하여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변화와 지속성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향이 일부 국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북한 내륙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시각과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에는 다소 간

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결과를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인식하는 등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 외부 정보를 용이하게 접하고 국경을 건너기 수월한 지역의 주민일수록 국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할 것이며, 이들의 가치판단과 행동 양식은 다른 지역 주민의 것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제한점들은 오히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대응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참조 사항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한계로 시간의 경과에 의한 표본의 의식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이 조사에 참여하는 표본은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구성된다. 매년 북한 사회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입국 연도가 아닌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동일연도에 탈북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과 입국 사이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설문지의 질문을 재북 시기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최선의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설계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절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최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2장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 1. 서론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집합체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변화양상을 보이며 정보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발전하거나 광범위하게 변동된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사회구조와 주민의 가치관, 행동방식, 문화수준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변화의 속도와 수준을 통해 그 사회의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변화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민의 일상생활인 의식주 실태와 양질의 변화, 그 추동 요인인 정보화 수준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기본으로 인식되는 보편적인 의식주를 북한에서도 역시 당·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1980년대 김일성 시대에는 의식주가 식의주로 ‘식’과 ‘의’의 순위가 변경되어 의식주 중에서도 식생활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천명하였다. 이후 식의주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정권의 정치공약으로 일관성 있게 강조되면서 북한식의 독특한 생활문화로 자리잡아왔다.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며(식생활) 비단옷을 입고(의생활) 기와집에 살게(주생활)”하겠다고 식의주를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투쟁의 목표로 선정했고<sup>3</sup> 이를 근간으로 하는 ‘인민생활 향상은 조선노동당 활동의 최고원칙’<sup>4</sup>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식의주는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 그 자체를 넘어 사회주의 제도 우월성과 체제 정당성의 논리적 근간을 이루며 “식량과 옷, 집이 있고 총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갈 수”(김정일, 1992.1.1.) 있다는 신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의식주 문제는 정책의 주요사안이며 정권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에 북한 사회 내에서의 ‘시장화’ 발달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장화는 정보 및 통신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본 장에서는 북한의 사회변동 조사에서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실태 분석에 초점을 둔다. 기존연구들은 북한연구의 특성상 검증불가능한 현저조사의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일상과 변화를 추적하여 적지않은 성과들을 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질적연구이거나 단기간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북한사회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는데 아쉬움을 남긴다.

3\_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93.1.1.

4\_『조선로동당 규약』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 p.8.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축적된 탈북민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정보화 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양적지표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주와 일상생활 영역의 변화, 가계의 소득과 지출구조 변화, 가족 내의 의사결정권 이동,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실태에 대한 양적 추이를 통해 질적수준을 논한다.

## 2. 의식주 생활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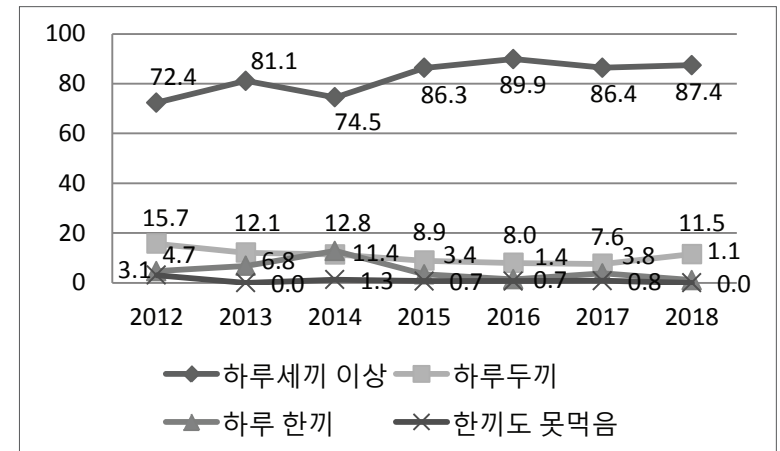
### 1) 식생활

#### (1) 하루 식사 횟수: 식생활의 양적 수준

식생활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이며 필수조건이다. 하루 식사 횟수는 식생활의 양적·질적 충족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기층사회의 생활실태와 변화의 추세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2018년 북한주민 식생활 조사에서 ‘하루 식사 횟수’를 묻는 질문에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87.4%로 2015년 86.3%, 2016년 89.9%, 2017년 86.4%에 이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이후 하루 세끼 식사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8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2012년 72.4%, 2013년 81.1%, 2014년 74.5%의 불안정한 추세보다 비교적 안정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단위: %)



또한 ‘하루 두 끼’를 먹었다는 응답은 2018년 11.5%로 2017년 7.6%에서 3.9% 증가한 수치로 2015년 8.9%, 2016년 8.0% 라는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하루 한 끼’를 먹었다는 응답은 2017년 3.8%에서 2018년 2.7%로 1.1% 감소하였다. ‘한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는 응답은 2015년 (0.7%), 2016년(0.7%), 2017년(0.8%) 이후로 1%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탈북 직전의 식생활 형편 질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5년 39.7%, 2016년 33.3%, 그리고 2017년 31.1%에 이어 2018년 26.4%로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음식은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년도 51.5%에서 47.1%로 4.4%나 감소했다.

또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년도 12.1%보다 5.1% 증가해 17.5% 나타났고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5년 1.4%, 2016년 2.9%, 2017년 5.3%에 이어 2018년 9.2%로 매년 큰 폭의 상승세로 나타났다.

〈표 2-1〉 식생활 양질의 비율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 음식 섭취	58(39.7)	46(33.3)	41(31.1)	23(26.4)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 음식 섭취 부족	60(41.1)	71(51.4)	68(51.5)	41(47.1)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음	25(17.1)	17(12.3)	16(12.1)	15(17.2)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음	2(1.4)	4(2.9)	7(5.3)	8(9.2)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북한의 경제성장률 저하와 식량 생산부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양적 식생활 수준은 8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북한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국가적 식량 생산에 커다란 부진을 겪었다. 또한 한국은행의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제재 강화로 인해 3.5%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7년 -6.5% 이후 최저치로 추정된다.

## (2) 곡물 비율과 고기 섭취: 식생활의 질적 수준

보다 구체적으로 곡물 비율과 고기 섭취 등 식생활의 질적 수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조사참여자들에게 탈북 직전 북한에서 “식사를 할 때 입쌀과 강냉이를 어떤 비율로 섞어 드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식생활의 질적 수준을 질문한 이유는 과거 북한 사회에서 계층에 따라 의식주 및 생필품을 차등별로 공급받던 수준에서 시장의 확산에 의해 오히려 역으로 식생활의 질적 수준이 사회구조와 계층의 지위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곡물은 “흰쌀(입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콩, 수수 등 주 식물 원재료의 곡종”을 말하는데 이 중에 입쌀과 강냉이를 주식으로 인식하며 “고기와 물고기, 남새로 만든 국과 여러 가지 반찬을 부식으로” 한다.<sup>5</sup> 일반적으로 부식이라 여기는 감자와 콩이 북한에서는 쌀생산의 양적 충족을 위해 주식에 포함된다.

북한에서 탈북 직전에 섭취한 곡물 비율중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은 2015년 61.0%, 2016년 60.1%, 2017년 52.3%에 이어 44.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 데 비해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어서 먹었다’는 응답은 2015년 9.0%, 2016년 10.1%, 2017년 16.7%에 비해 17.2%로 매년 증가세로 나타났다. 한편, ‘강냉이 위주로 먹었다’는 응답자는 전년도 2017년 6.1%에서 14.9%로 상승하였고 ‘강냉이만 먹었다’는 응답은 2015년(10.3%), 2016년(11.6%), 2017년(12.1%)에서 2018년(12.6%)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5\_박수향 “농산, 축산, 수산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의 3대축” 『사회과학원학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년 제1호.

〈표 2-2〉 주식의 구성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거의 입쌀	89(61.0)	83(60.1)	69(52.3)	39(44.8)
입쌀 위주, 강냉이 섞음	20(13.8)	11(8.0)	17(12.9)	8(9.2)
입쌀과 강냉이 반반	13(9.0)	14(10.1)	22(16.7)	15(17.2)
강냉이 위주, 입쌀 섞음	8(5.5)	14(10.1)	8(6.1)	13(14.9)
거의 강냉이만	15(10.3)	16(11.6)	16(12.1)	11(12.6)
합계	145(100.0)	138(100.0)	132(100.0)	87(100.0)

조사결과 곡물의 양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입쌀 위주의 식사 수준을 유지했던 지난 수년 간에 비해 2018년에는 40%대로 급감하고 대신 입쌀과 강냉이를 섞어 먹거나 강냉이만 먹었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다가 최근 들어 다시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곡물의 양적 충족을 위해 ‘종자 혁명과 감사농사혁명, 두벌 농사와 콩농사열풍을 일으켜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sup>6</sup>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엔케이의 분석에서도 2018년 현재 북한에서 쌀 수확량이 감소하여 잠곡을 찾는 주민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에서 주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식, 그중에서도 단백질의 주공급원인 고기(육류와 어류 포함) 섭취량은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고기 식사 횟수는 ‘거의 매일 섭취’(11.5%)했다는 응답이 전년도(2017년) 17.4%에 비해 5.9% 정도 감

6\_논설 "올해농사 결속을 잘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사업" 『로동신문』, 2018.9.5.

소하였고, 이어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33.3%)했다는 응답도 전년도 37.1%에 비해 3.8% 정도 감소했다. 반면 ‘한 달에 한두 번 섭취’(37.9%)했다는 응답은 전년도 32.6% 보다 5.4% 증가하면서 ‘일 년에 한두 번 섭취’(14.9%) 했다는 응답은 전년도 9.1%에 비해 5.8% 상승했다.

〈표 2-3〉 고기 섭취 횟수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거의 매일	4 (3.1)	6 (4.5)	5 (3.4)	33 (22.6)	18 (13.0)	23 (17.4)	10 (11.5)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27 (21.3)	31 (23.5)	37 (24.8)	45 (30.8)	52 (37.7)	49 (37.1)	29 (33.3)
한달에 한두 번 정도	58 (45.7)	59 (44.7)	64 (43.0)	52 (35.6)	49 (35.5)	43 (32.6)	33 (37.9)
일년에 한두 번 정도	34 (26.8)	36 (27.3)	41 (27.5)	15 (10.3)	17 (12.3)	12 (9.1)	13 (14.9)
먹어본 적이 없음	2 (1.6)	0 (0.0)	2 (1.3)	1 (0.7)	1 (0.7)	4 (3.0)	1 (1.1)
무응답	2 (1.6)	0 (0.0)	0 (0.0)	0 (0.0)	1 (0.7)	1 (0.8)	1 (1.1)
합계	127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매일 먹는 고기 섭취 횟수는 2012년 3.1%, 2013년 4.5%, 2014년 3.4%를 유지하다가 2015년에 22.6%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 각각 13.0%, 17.4%로 10%대로 떨어져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역시 11.5%로 하락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고기를 섭취했다는 응답은 2012년 21.3%, 2013년 23.5%, 2014년 24.8%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30.8%, 2016년 37.7%로 급상승하였고 2017년 37.1%에서 2018년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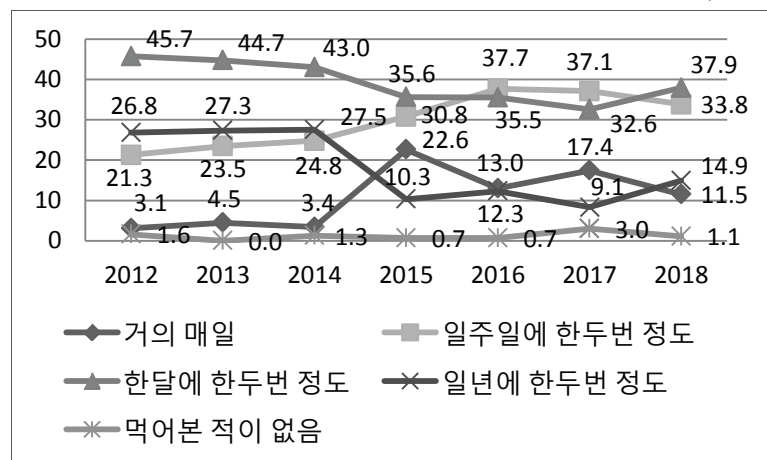
로 3.9%로 감소하였다. 반면 한달에 한두 번 정도 고기를 섭취했다는 응답은 2012년 45.7%에서 2015년 35.6%, 2017년 32.6%에서 2018년 37.9% 증가했다.

고기 섭취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국제사회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 시장이 침체되면서 고기 가격 역시 급등했기 때문이다. 데일리엔케이에 따르면 매해 연초에 1kg당 1만 1,500원 수준으로 판매되던 돼지고기는 2017년 같은 시기에 6,000원이나 폭등했다. 중국에서 수입하던 고기 물량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가격도 올랐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2016년 두 차례(4차, 5차)의 핵실험과 2017년 핵실험(6차), 수십 여발의 핵미사일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여 2016, 2017년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전체적으로 식생활의 양적 수준은 느린 감소세를 보여 아직 안정된 상태인 듯 보이나 전년도 대비 질적 수준이 다방면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고기 섭취 횟수

(단위: %)



## 2) 의생활 실태

### (1) 의류의 구매 횟수

북한에서 ‘옷차림’은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정서를 반영하는 사상이나 정신세계의 표현이라고 한다. 북한은 의류산업을 통해 부르조아 생활양식이 유포되지 않도록 경계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옷에 대한 통제이다. 과거 배급제가 가동하던 시기에 북한주민들은 국가가 제정한 의류 구매권에 따라 편직물 의복을 공급받아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의류들을 사용했으나, 시장화가 진행되고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에는 의류의 선호도와 구매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개성이 반영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옷을 얼마나 자주 사 입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절마다 한두 번 정도 구입’한다는 응답은 52.9%로 전년도 62.1% 대비 9.8%나 감소했다. 2012년 32.5%였던 계절마다 한두 번 옷을 구매하는 횟수가 2015년 52.1%, 2017년에는 62.1%로 대폭 증가해 지난 조사에서 대다수 주민이 매년 새 옷을 사 입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2018년도 조사에서는 전년도 2017년에 비해 9.2%의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표 2-4〉 의류 구매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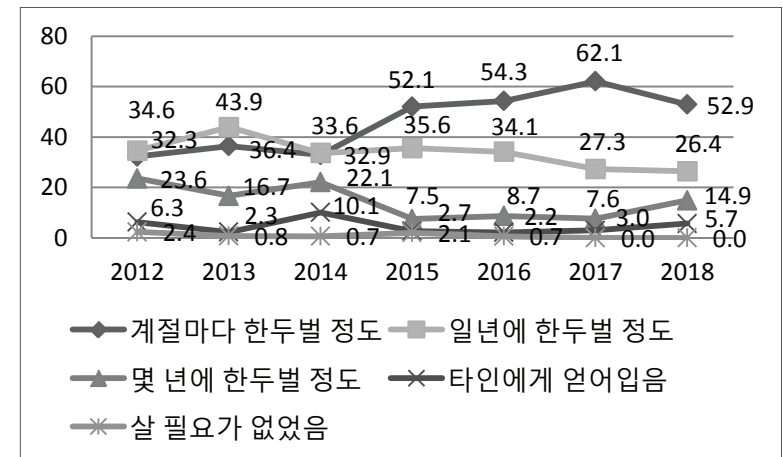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41 (32.5)	48 (36.4)	49 (33.1)	76 (52.1)	75 (54.3)	82 (62.1)	46 (52.9)
일년에 한두 벌 구매	44 (34.9)	58 (43.9)	50 (33.8)	52 (35.6)	47 (34.1)	36 (27.3)	23 (26.4)
몇 년에 한두 벌 구매	30 (23.8)	22 (16.7)	33 (22.3)	11 (7.5)	12 (8.7)	10 (7.6)	13 (14.9)
남한테 얻어 입음	8 (6.3)	3 (2.3)	15 (10.1)	4 (2.7)	3 (2.2)	4 (3.0)	5 (5.7)
살 필요가 없었음	3 (2.4)	1 (0.8)	1 (0.7)	3 (2.1)	1 (0.7)	0 (0.0)	0 (0.0)
합계	126 (100.0)	132 (100.0)	148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또한 ‘일년에 한두 벌 정도 구입’한다는 응답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35.6%, 34.1%에서 2017년 27.3%로 감소했는데 2018년 26.4%로 전년 대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며 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몇 년에 한두 벌 정도’ 구매하거나 ‘남한테 얻어 입었다’고 답한 응답은 2015년 10.2% 이후 2016년 10.9%, 2017년 10.6%에 비해 20.6%로 두 배나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의류 구매를 단념하거나 ‘구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한 응답은 2015년 2.1%, 2016년 0.7%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0%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3〉 의류 구매 횟수

(단위: %)



조사결과 2017년에 비해 매년 새 옷을 구매하는 횟수가 감소하고 몇 년에 한두 벌 또는 남한테 얻어 입는 횟수가 급증한 것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의류 구매를 단념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북한 주민이 과거보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 흥미롭다. 북한의 기층사회에서 질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2) 의류 원산지 및 구입경로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필품 대부분은 중국산이지만 최근에는 국내산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주로 입는 옷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중국산이라고 답한 응답이 2012년 78.7%에서 2013년 93.2%로 급증하여 가장 높은 수치

를 기록했으나 2016년 81.2%, 2017년 82.6%로 유지하다가 2018년 4.4% 줄어든 78.2%로 나타났다.

북한산 옷을 구매했다는 응답은 2018년 14.9%로 2015년 3.4%, 2016년 7.2%, 2017년 9.1%로 점차 증가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전년도에 비해 5.8%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8.9%나 사용했던 남한산 의류가 2016년 5.1%, 2017년 1.5%로 감소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0%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일본산도 2015년 5.5%에서 2016년 0.7%, 2017년 1.5%, 2018년 1.1%로 현저히 줄고 있는 추세이다.

〈표 2-5〉 의류 원산지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북한산	8 (6.3)	4 (3.0)	13 (8.7)	5 (3.4)	10 (7.2)	12 (9.1)	13 (14.9)
중국산	100 (78.7)	123 (93.2)	124 (83.2)	112 (76.7)	112 (81.2)	109 (82.6)	68 (78.2)
남한산	3 (2.4)	2 (1.5)	4 (2.7)	13 (8.9)	7 (5.1)	2 (1.5)	0 (0.0)
일본산	3 (2.4)	3 (2.3)	3 (2.0)	8 (5.5)	1 (0.7)	2 (1.5)	1 (1.1)
기타 외국산	0 (0.0)	0 (0.0)	1 (0.7)	2 (1.4)	0 (0.0)	1 (0.8)	0 (0.0)
무응답/ 응답오류	13 (10.2)	0 (0.0)	4 (2.7)	6 (4.1)	8 (5.8)	6 (4.5)	5 (5.7)
합계	127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이처럼 북한의 의류산업에서 대외의존도가 낮아지는 원인은 앞서 설명했듯이 거듭되는 국제제재로 중국산의 수입량이 부족하고 이에 맞추어 김정은 정권의 국산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아직은 중국산 의류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대신 증가하고 있는 북한산 의류의 실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이 의류를 구매하는 장소는 주로 시장(장마당)이고 그 다음 순위는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이다. 의류 구입 경로를 묻는 질문에 시장에서 구매했다는 응답은 2012년 이후 80%대 후반에서 90%대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2015년 89.0%, 2016년 91.3%, 2017년 86.4%에서 2018년 90.8%로 약간 증가한 수치를 통해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이나 직매점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의류를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북한 주민은 2015년 6.2%, 2016년 6.5%, 2017년 7.6%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듯 보였으나, 2018년 3.4%로 전년도 대비 4.2%나 감소했다. 백화점 또는 외화상점에서 의류를 구매한 응답자 역시 2015년 3.4%, 2016년 1.4%, 2017년 3.0%로 소폭이지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다가 2018년 0%로 조사되었다.

〈표 2-6〉 의류 구입경로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장 (장마당)	113 (89.0)	126 (95.5)	135 (90.6)	130 (89.0)	126 (91.3)	114 (86.4)	79 (90.8)
국영상점	1 (0.8)	1 (0.8)	0 (0.0)	0 (0.0)	0 (0.0)	1 (0.8)	0 (0.0)
직매점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1 (1.1)
백화점 (외화상점)	1 (0.8)	0 (0.0)	0 (0.0)	5 (3.4)	2 (1.4)	4 (3.0)	0 (0.0)
외국에서 직접 구입	8 (6.3)	5 (3.8)	6 (4.0)	9 (6.2)	9 (6.5)	10 (7.6)	3 (3.4)
국가선물/ 무상배급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무응답/ 응답오류	4 (3.1)	0 (0.0)	6 (4.0)	2 (1.4)	1 (0.7)	3 (2.3)	4 (4.6)
합계	127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북한에서 2013년 초에 등장한 국산화 바람은 2014년 8월 김정은의 ‘천지윤희유공장 현지도’에서 “원료와 첨가제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 라”고 지시하면서 표면화되었다. 현재 의류부문에서는 방직공업의 현대화 지침에 따라 학생 교복, 일반인 옷, 가방, 양말, 운동복, 신발 등을 기층 단위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sup>7</sup> 이것이 의류 구매조사에서 북한산과 시장구매율이 약간 높아진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류부분에 대한 조사결과 북한 사회의 소비경

7. “국산화는 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 『노동신문』 2017.7.21.

제가 예년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 주민들의 의류 소비에서 시장 의존도가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유층의 상징인 백화점 또는 외화상점 구매율이 감소되면서 해외 구매율 역시 대폭 줄어든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유층의 의류 구매축소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북한 사회의 계층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3) 주생활 실태

#### (1) 살림집 유형

북한에서 의식주 가운데 식생활과 의생활의 소비품은 개인소유에 한정하지만, 주생활 공간인 살림집은 사회적 또는 국가적 소유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살림집은 남한의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사용권만 배정된다. 일반적인 주거형태는 아파트, 하모니카(연립주택), 독집(단독주택), 기타 등이 있다.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어떤 형태의 살림집에 살았는가를 질문하였을 때, 아파트사용자는 12.6%, 연립주택 사용자는 49.4%, 단독주택 사용자는 29.9%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연립주택 사용자는 2015년 34.9%, 2016년 39.9%, 2017년 44.7%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연립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작은 단칸방수십 가구들이 붙어있는 하모니카주택이며, 다른 하나는 4-8세대를 2줄로 붙여지어 외관이 넓어 보이는 땅집이다. 주로 중소도시 시내와 변두리에 위치하는 연립주택 공급은 2012년 49.2%에서 2013년 53.0%,



2014년 65.1%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전년 대비 20.2%나 급감했다. 최근 4년 연속 다시 증가하고 있는 연립주택 사용률은 2015년 이전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사용자는 2015년 33.6%로 최고율을 보인 이후 2016년 26.1%는 전년도 대비 7.5%가 줄었다. 2017년은 22.0%로 전년도보다 4.1%나 감소한 데 이어, 2018년 12.6%의 수치로 전년도 대비 9.4%의 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평양시를 비롯한 대도시에 매년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들이 줄지어 조성되고 있으나<sup>8</sup>,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북한 전역의 아파트 공급실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두 세대가 사는 경우로 전년도 대비 사용자가 2.6%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대부분 당·행정기관 간부들이 단독주택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돈으로 구매하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2년 25.4%를 차지했던 단독주택 사용자가 2013년에는 18.9%로 전년도 보다 6.5% 줄었고, 2014년에는 15.4%로 전년도 보다 3.5% 더 줄었다. 연속 감소하던 단독주택 사용자가 2015년에는 24.0%로 8.6%나 반등했고 2016년 26.1%, 2017년 26.5%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3.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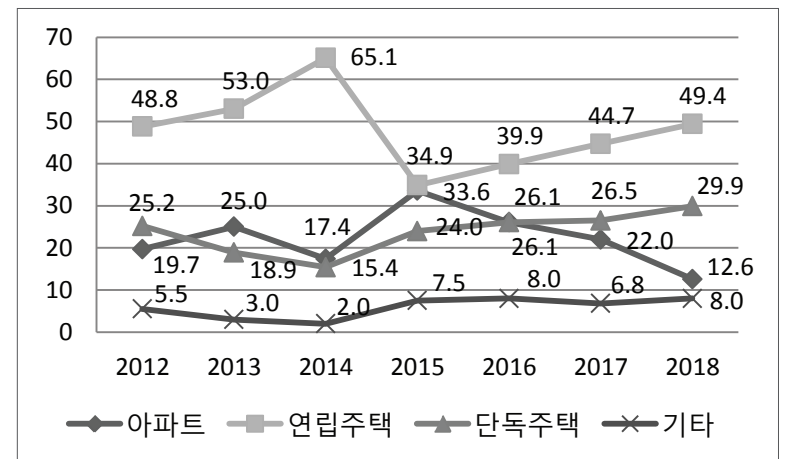
〈표 2-7〉 살림집 유형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파트	25 (19.8)	33 (25.0)	26 (17.4)	49 (33.6)	36 (26.1)	29 (22.0)	11 (12.6)
연립주택	62 (49.2)	70 (53.0)	97 (65.1)	51 (34.9)	55 (39.9)	59 (44.7)	43 (49.4)
단독주택	32 (25.4)	25 (18.9)	23 (15.4)	35 (24.0)	36 (26.1)	35 (26.5)	26 (29.9)
기타	7 (5.6)	4 (3.0)	3 (2.0)	11 (7.5)	11 (8.0)	9 (6.8)	7 (8.0)
합계	126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그림 2-4〉 살림집 유형

(단위: %)



8 김정은 집권이후 창전거리(2012), 은하과학자거리(2013), 위성과학자주택지구(2014), 미래과학자거리(2015), 여명거리(2017) 등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 아파트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2) 살림집 장만 경로

최근 북한사회에서 살림집을 장만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 배정하던 공급체계를 넘어 주택의 상품화, 시장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살림집 장만 경로 조사에서 “내가 돈 주고 샀음”을 확인한 응답은 37.9%로 2012년 46.0%에서 2013년 66.7%로 전년도 대비 19.3%나 급상승한 이후, 2014년 53.5%, 2015년 55.2%, 2016년 49.3%, 2017년 58.8%에서 2018년은 37.9%의 수치로 최저비율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살림집을 직접 구매하는 경로에서 국가의 개입(통제, 규제 등)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의한 국제적 경제제재의 여파로 돈벌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살림집을 “국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응답자는 21.8%로 전년도 18.3% 대비 약간 증가했으나, 2015년 20.0% 이후 20%대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돈으로 살림집을 장만하는 사례가 위축되긴 했지만, 매년 돈으로 매매되는 주택 공급시장과 국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주택이 각각 4-50%대와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의 국가 주택공급체계가 여실히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살림집을 “직접 지어서 사용”했다는 응답은 전년도 6.1%에 비해 16.1%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2012년 10.3%에서 2016년에는 15.2%로 급증한 데 이은 결과이다. 비록 등락은 있으나 집을 직접 짓는 사용자가 10%대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 내 주택 시설의 개성과 다양화를 기대하게 한다.

다음으로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 사용자는 2016년 13.8%, 2017년 14.5%에 이어 2018년 17.2%로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친

척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응답자도 2016년 1.4%, 2017년 2.3%에 이어 2018년 3.4%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조상이나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친척 또는 지인에게 받아서 사용했다는 응답률은 2018년 20.6%로 매해 약간의 증가세를 보인다. 여기에 살림집을 돈으로 구매하거나 직접 지어서 사용한 응답률 54%를 비교해보면 국가에서 배정받아서 사용한 응답률은 압도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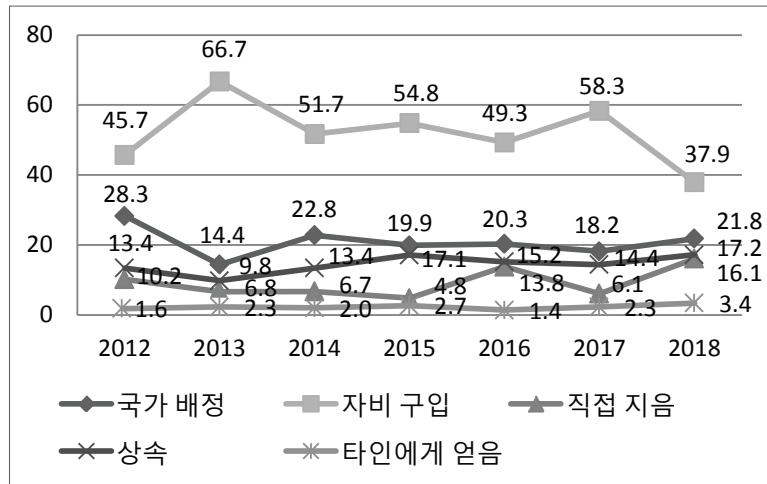
〈표 2-8〉 살림집 장만 경로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가에서 배정받음	36 (28.6)	19 (14.4)	34 (23.6)	29 (20.0)	28 (20.3)	24 (18.3)	19 (21.8)
내가 돈 주고 샀음	58 (46.0)	88 (66.7)	77 (53.5)	80 (55.2)	68 (49.3)	77 (58.8)	33 (37.9)
내가 직접 지었음	13 (10.3)	9 (6.8)	10 (6.9)	7 (4.8)	21 (15.2)	8 (6.1)	14 (16.1)
조상/부모로부터 물려받음	17 (13.5)	13 (9.8)	20 (13.9)	25 (17.2)	19 (13.8)	19 (14.5)	15 (17.2)
친척/주변사람한테 받음	2 (1.6)	3 (2.3)	3 (2.1)	4 (2.8)	2 (1.4)	3 (2.3)	3 (3.4)
무응답/응답오류	1 (0.8)	0 (0.0)	5 (3.3)	1 (0.7)	0 (0.0)	1 (0.8)	3 (3.4)
합계	127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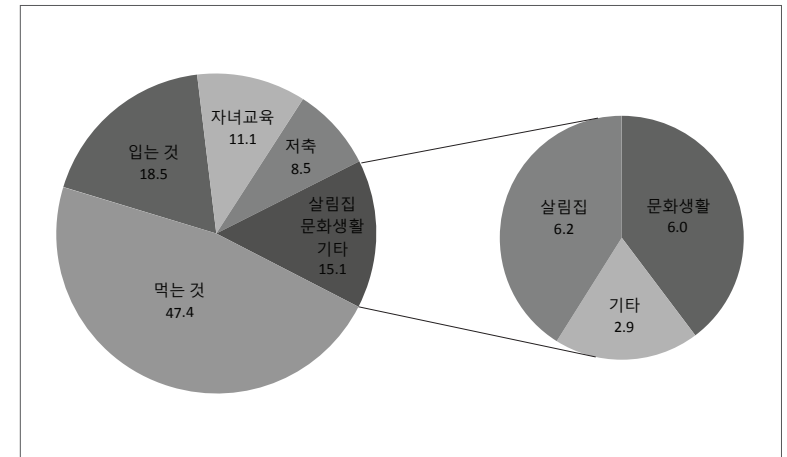
〈그림 2-5〉 살림집 장만 경로

(단위: %)



〈그림 2-6〉 가계소득 지출구조

(단위: %)



### 3. 월평균 지출과 가족생활

#### 1) 가계소득 지출구조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태와 변화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월평균 항목별 지출을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먹는 것은 4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입는 것 18.5%, 자녀교육 11.1%, 살림집 6.2%, 문화생활 6.0%, 기타 2.9% 순으로 지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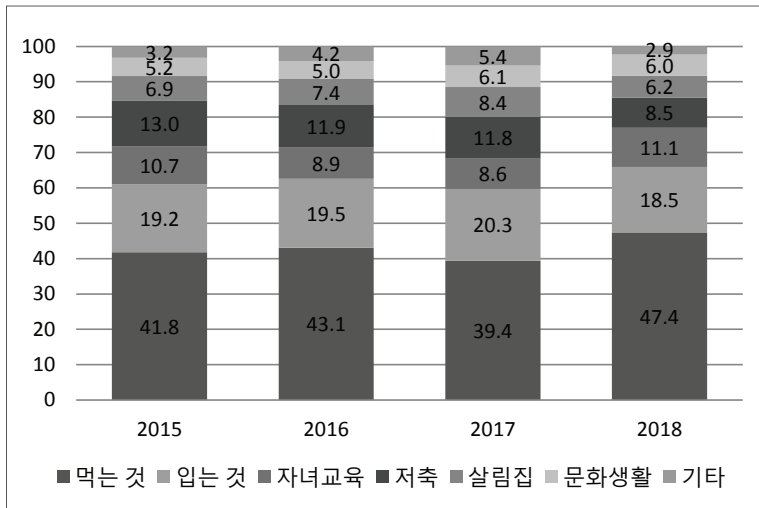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조사부터 추가된 월평균 지출항목에서 해마다 식생활 비중이 가장 높아 2015년 41.8%, 2016년 43.1%로 40%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39.4%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8년 지출항목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전년 대비 8.0%나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년, 2017년에 세 번의 핵실험과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경제제재로 수입이 중단되면서 물가 인상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의류 소비와 저축비율은 전년도 20.3%, 11.8%에서 다소 감소했다. 의류 소비는 2015년 19.2%, 2016년 19.5%에 이어 2018년 18.5%로 저하율을 차지했다. 저축비율은 2015년부터 과거 4년 사이에 4.5%나 하락했다. 저축은 2015년 13.0%에서 2016년 11.9%, 2017년 11.8%로 축소되었다가 2018년에는 3.3%나 급감해 8.5%로 조사되었다. 의류 소비가 위축

되고 저축이 급감한 이유는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7〉 가계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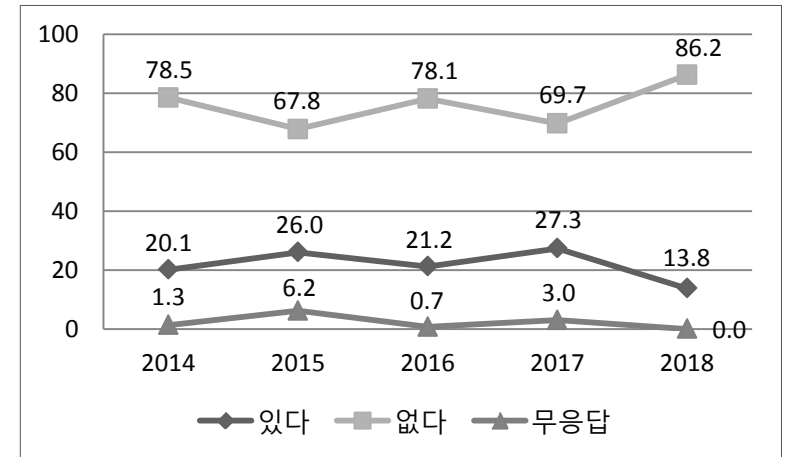
(단위: %)



가계소득 지출구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식생활과 의류 소비는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므로 지출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자녀교육과 저축항목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2015년 10.7%, 2016년 8.9%, 2017년 8.6%로 다소 감소하던 사교육 지출비용이 2018년 11.1%로 전년도 보다 2.5% 늘어났다. 자녀교육 지출은 사회적 가치의 추구, 직업에 대한 욕구와 삶의 질적 향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종의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8〉 자녀 사교육 경험

(단위: %)



탈북 직전에 자녀의 사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은 2018년 기준 13.8%로 전년도 대비 14.5%나 감소한 반면 사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은 전년도(2017년) 69.7%보다 16.5% 증가해 2018년 85.2%로 나타났다. 과거 자녀 사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20.1%, 2015년 26.0%, 2016년 21.2%, 2017년 27.3%였던 것에 비해 2018년 처음으로 해당 응답이 13.8%의 수치를 나타내며 10%대로 감소세를 보였다. 북한에서 사교육 시장은 당국의 허가증이 없어 비공식 시장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해당 응답 결과는 사교육 지출이 높은 데 비해 월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사회적 통제가 심해진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 2) 일상생활의 고민과 가족 내 의사결정

### (1) 일상생활의 고민

북한사회 저변의 지속과 변화, 다양한 면모들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일상생활의 ‘걱정과 고민’ 여섯 가지의 질문을 했다. 그 결과 ‘돈벌이’ 고민이 55.2%로 압도적 자리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보안원 및 보위부의 각종 단속에 대한 걱정이 26.4%, 조직생활에 대한 고민 5.7%, 자녀교육 고민 4.6%, 간부에게 뇌물을 고이는 고민과 출세에 대한 고민이 각각 3.4%로 조사되었다.

〈표 2-9〉 북한주민 일상생활의 고민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돈 벌어야하는 걱정	72 (56.7)	66 (50.0)	76 (51.0)	69 (47.3)	69 (50.0)	69 (52.3)	48 (55.2)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1 (0.8)	4 (3.0)	6 (4.0)	3 (2.1)	7 (5.1)	3 (2.3)	3 (3.4)
보안원/보위부 각종 단속	29 (22.0)	40 (30.3)	42 (28.2)	47 (32.2)	37 (26.8)	36 (27.3)	23 (26.4)
조직생활	8 (6.3)	9 (6.8)	6 (4.0)	12 (8.2)	12 (8.7)	7 (5.3)	5 (5.7)
출세	3 (2.4)	6 (4.5)	4 (2.7)	6 (4.1)	5 (3.6)	0 (0.0)	3 (3.4)
자녀교육	6 (4.7)	4 (3.0)	7 (4.8)	9 (4.8)	7 (5.1)	10 (7.6)	4 (4.6)
기타	3 (2.4)	3 (2.3)	1 (0.7)	1 (0.7)	0 (0.0)	4 (3.0)	1 (1.1)
무응답	6 (4.7)	0 (0.0)	1 (0.7)	1 (0.7)	0 (0.0)	3 (2.3)	0 (0.0)
합계	127 (100.0)	132 (100.0)	146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돈벌이 고민은 2015년 47.3%, 2016년 50.0%, 2017년 52.3%에 이어 매년 2-3%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 탈북한 조사참여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밑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사에 대한 통제, 규제가 힘들었고 시장에서 장사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같은 품목, 상권, 자리싸움이 많고 장사를 단속하는 순찰대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 다니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sup>9</sup>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손전화, 탈북, 마약, 비사회주의 현상들을 검열하는 보안원이나 보위부 등 단속기관의 통제에 대한 고민거리는 2015년 32.2% 최고치로 조사된 이후 2016년 26.8%에는 감소되었고 이 상태는 2017년 27.3%, 2018년 26.4%로 일정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조직생활 고민은 2012년 6.3%에서 2015년 8.2%로 상승하였고 이는 2016년 8.7%로 유지하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3%, 5.7%로 감소세를 보인다.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뇌물에 대한 고민은 2015년 2.1%에서 2017년 2.3, 2018년 3.4%로 증가하는 한편, 출세에 대한 고민은 2015년 4.1%에서 2018년 3.4%로 약간 줄었다. 북한사회의 수직구조에서 서로 상대적 의미를 갖는 뇌물과 출세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저조한 단계이지만 물질 중심의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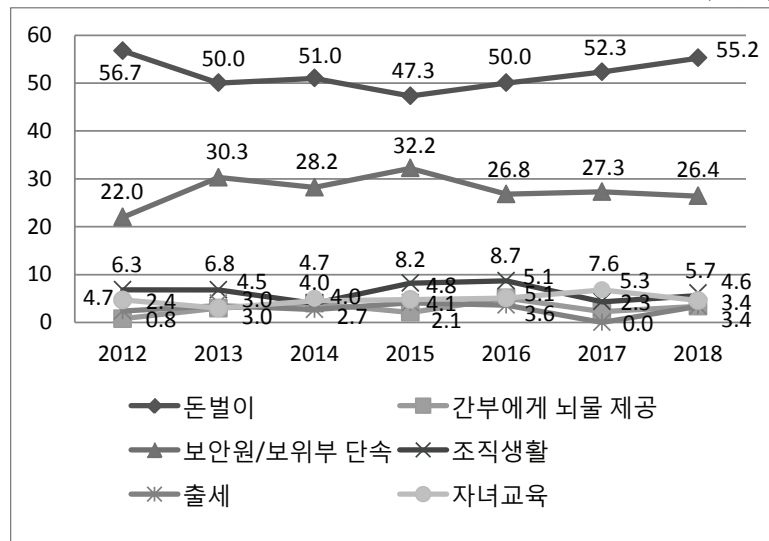
이외에도 자녀교육 고민이 2012년 4.7% 이후 4%대를 유지하다가

9\_이은실(가명, 40대, 여) 북한 청진시 거주, 2017년 탈북, 인터뷰 날짜: 2018.6.20.

2016년 5.1%, 2017년 7.6%로 급상승해 지속 성장할 듯했으나 2018년 다시 4.6%로 반등했다. 앞서 자녀 사교육 지출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2.5% 늘었지만 사교육 경험은 14.5%나 줄어든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자녀교육의 고민을 통해 북한사회의 문화수준 양극화와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고민

(단위: %)



2012년부터 6년간의 일상생활 고민을 묻는 조사에서 특징적인 점은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패턴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돈벌이 고민은 2015년 40%대로 하락한 경우를 제외하면 50%대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보안원·보위부의 통제 또는 단속에 대한 고민 역시 2013년, 2015년 30%대 초반을 기록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20%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생활, 출세, 자녀교육 고민이 10% 미만에 머물러 있다. 이는 북한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단조로움이나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 가족 내의 의사결정권

북한에서 가족은 사회의 세포이며 사람들의 기층생활단위라고 한다. 가족 내의 일상과 환경은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은 사회의 문화정서적 생활기풍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sup>10</sup> 북한의 가족 구성원 중에 남편은 가족을 책임지는 세대주이며 남편의 사회적 지위는 계층질서에서 그 가족의 출신 및 사회적 성분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가부장적 성향이 강한 북한 사회에서 가족 내의 의사결정권은 대부분 남편에게 있고 이는 제도적으로 남성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수적 현상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가족 내 의사결정권이 남편에서 부인으로 이동하거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로 변화하고 있다.

10\_ "혁명가와 문화정서생활" 『노동신문』 2018.3.12.

〈표 2-10〉 가족 내의 의사결정권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	41 (28.1)	37 (26.8)	40 (30.3)	28 (32.2)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상의	27 (18.5)	33 (23.9)	38 (28.8)	26 (29.9)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	39 (26.7)	43 (31.2)	32 (24.2)	25 (28.7)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	31 (21.2)	23 (16.7)	19 (14.4)	7 (8.0)
무응답/응답오류	8 (5.5)	2 (1.4)	3 (2.3)	1 (1.1)
합계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이번 조사에서 북한사회 가족 내의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묻는 질문에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32.2%로 나타나 2015년 28.1%, 2016년 26.8%, 2017년 30.3%에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대로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2015년 21.2%에서 4.5% 감소하여 2016년 16.7%, 2017년에는 2.2% 감소하여 14.4%, 2018년에는 6.4%나 급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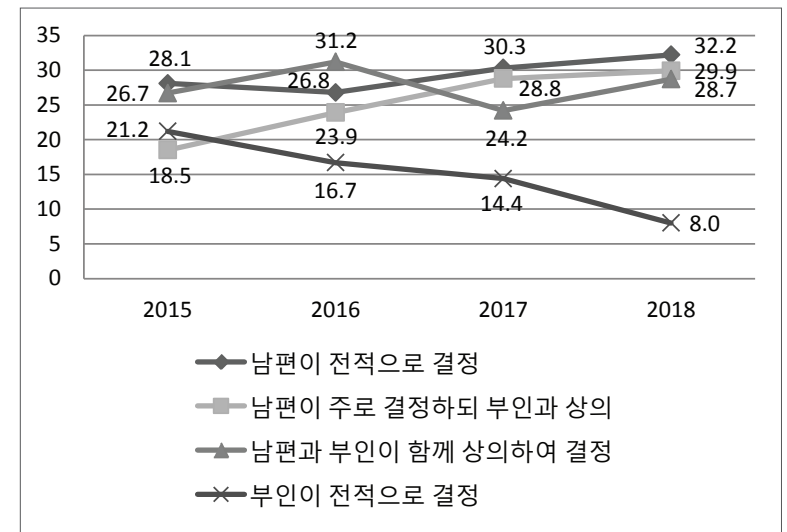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상의” 한다는 응답은 2015년 18.5%에서 2016년에 비해 5.4%가 증가해 23.9%,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4.9% 증가해 28.8%,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1.1% 증가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은 2015년 26.7%, 2016년 31.2%, 2017년 24.2%, 2018년 28.7%로

비록 등락은 있으나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 내의 의사결정권 조사를 통해 북한사회의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하나는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남편에서 부인으로 이동되었던 가족 내의 주도권이 2015년 이후 사회질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남편으로 회복하려는 전통지향적 성향을 드러냈다. 다른 하나는 가족 내부에서 합의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선택이 증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합리적·이성적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10〉 북한 가족 내의 의사결정권

(단위: %)



### 3) 남한산 제품의 사용 경험과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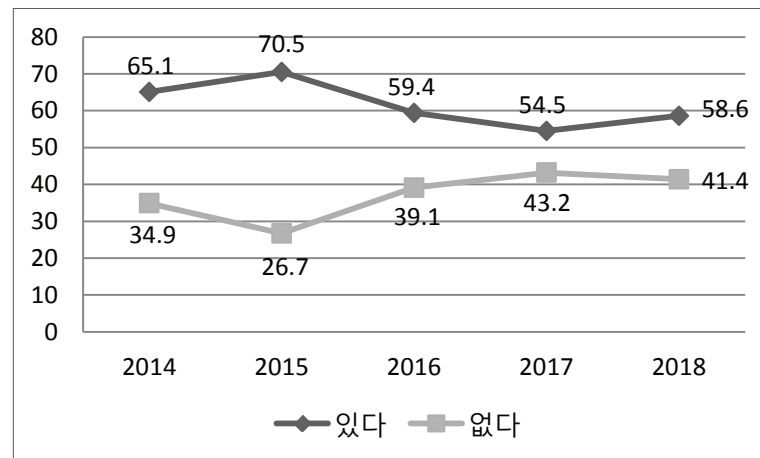
#### (1) 남한산 제품의 사용 경험

북한에서 남한산 제품은 인기가 많아 선호도가 가장 높으나 당국의 통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 남한산 제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남한산 제품의 구매가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산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18년 41.4%로 전년도인 2017년 54.5%에 비해 13.1%나 감소한 수치이다. 반대로 남한 제품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2018년 58.6%로 2015년 26.7%에서 2016년 39.1%, 2017년 43.2%로 전년도에 비해 15.4%나 급증했다. 10명 중 7명이었던 남한산 제품 경험자는 매년 연속 감소하여 현재는 10명 중 5-4명으로 감소하는 추이에 있다.

남한산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 2015년을 기점으로 남한 제품 경험자가 매해 줄고 있는 현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것과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수년간 지속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북한의 국산화 정책에 의해 외부의 제품을 통제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1〉 남한산 제품 경험의 유무

(단위: %)



#### (2) 남한산 제품 종류

사용해본 남한산 물건의 종류는 의류 41.7%, 잡화 22.2%, 가전제품 16.7%, 식품류 13.9% 순으로 의류가 가장 많았다. 의류의 비율은 2018년 41.7%로 전년도 2017년에 비해 2.7% 증가했지만 2014년 37.1%, 2015년 30.8%, 2016년 42.9%로 등락을 반복하며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한산 화장품, 신발, 시계, 귀금속 등을 포함한 잡화도 의류와 같이 전년도 대비 2.7% 증가했으나 2014년 26.8%, 2015년 15.1%, 2016년 26.2%, 2017년 19.5%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도 일정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남한산 TV, 라디오, 녹화기 등의 가전제품 사용률은 2018년 기준 전년도 2017년에 비해 1.5% 정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4년



14.4%, 2015년 13.0%, 2016년 14.3%, 2017년 18.2%로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남한산 식품류의 경우도 2018년 기준 전년도 대비 3.0%나 낮은 수준이지만 2014년 15.5%, 2015년 12.3%, 2016년 15.5%, 2017년 16.9%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사용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표 2-11〉 북한에서 경험해본 남한산 제품의 종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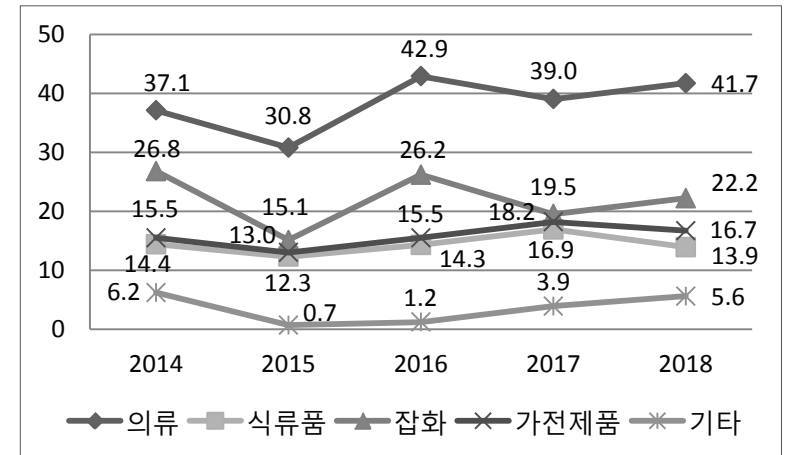
남한물건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류	36 (37.1)	45 (30.8)	36 (42.9)	30 (39.0)	15 (41.7)
식품류	15 (15.5)	18 (12.3)	13 (15.5)	13 (16.9)	5 (13.9)
잡화	26 (26.8)	22 (15.1)	22 (26.2)	15 (19.5)	8 (22.2)
가전제품	14 (14.4)	19 (13.0)	12 (14.3)	14 (18.2)	6 (16.7)
기타	6 (6.2)	1 (0.7)	1 (1.2)	3 (3.9)	2 (5.6)
합계	97 (100.0)	105 (100.0)	84 (100.0)	77 (100.0)	36 (100.0)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류와 잡화가 비슷한 시기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수 있다. 남한산 의류와 잡화는 2015년에도 각각 전년도 대비 6.3%, 11.7% 동반 감소했고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각각 12.1%, 11.1%로 동반 상승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2.9%, 6.7%로 각각 감소했다가 2018년 들어 모두 2.7% 동반 증가 되었다. 이처럼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등락을 반복하는 의류와 잡화는

북중관계에서 밀수업이 통제되거나 느슨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2〉 북한에서 경험해본 남한산 제품의 종류

(단위: %)



## 4. 주민생활과 정보화 추이

### 1) 전화기의 보유와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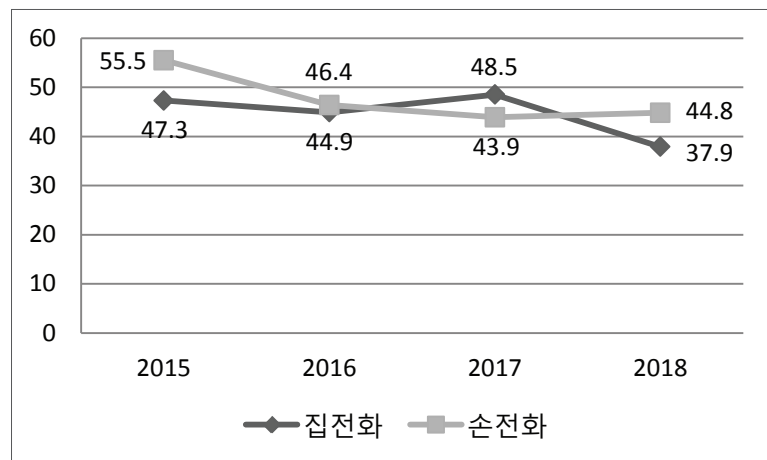
정보통신의 발달은 북한사회에도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망의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화에 정보화가 결합되어 개인과 개인의 교환가치를 촉진하고 이윤감은 있지만 사회적 신뢰자본이 축적되는 현상까지 파악되고 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소통수단인 전화기(집전화, 손전화) 보유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는 2015년부터 이루어졌다.

그 결과 손전화는 2015년에 55.5%의 이용률을 자랑하다가 2016년 46.4%로 전년도 대비 9.1%의 큰 폭으로 감소하고 2017년 43.9%로 전년도 대비 2.5%로 감소, 2018년에는 44.8%로 전년도 대비 1.6%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집전화는 2015년 47.3%에서 2016년 2.4% 줄어 44.9%가 되었고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3.6% 늘어 48.5%,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10.6%의 큰 폭으로 감소하여 37.9%로 조사되었다.

〈그림 2-13〉 북한에서 소유했던 집전화와 손전화

(단위: %)



물론 오르내림의 변화는 있지만 손전화와 집전화는 전체 80%대를 유지하고 있어 과거에는 신기하게만 보였던 정보통신기기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현재 북한에서 보급되고 있는 손전화는 360만 대(인구 100명 중 14.26명)에 이르며 2018년 현재 500만 대로 추정된다. 이는 2,500만 명으로 추정

되는 북한 인구에서 5명당 1대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하지만 손전화를 일인이 여러 대 소지할 가능성도 있으며 중국에서 밀반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유율을 사용률로 보아야 할지는 의문이 든다.

북한 주민들은 손전화를 통해 신문이나 잡지 구독뿐만 아니라, 교육 정보 역시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한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상수문국에서 손전화기용 ‘농업기상’을 개발하여 일기예보를 전달하고 있다.<sup>11)</sup> 돈만 있으면 구입 가능한 손전화기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손전화를 통해 문자를 보내고 영상을 찍어 주고받으며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손전화는 단절된 지역과 지역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역할도 한다. 비록 남한에 비하면 북한의 통신시장은 아직 협소하지만 과거 보다 통신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 2)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실태

북한에서 노트북, 녹화기, DVD플레이어,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당국이 통제하는 외부세계의 음악, 영화,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젊은 층일수록 선호도가 높다. 정보통신기기는 중국에서 대량 유입되어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내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을 집전화, 손전화 이외에도 노트북, 녹화기, DVD플레이어, 컴퓨터, 인트라넷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11. “과학농사에 이바지하는 정보기술제품-‘농업기상’”『노동신문』 2018.1.3.

조사결과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화기가 57.5%로 가장 많았고 노트북 46.0%, DVD플레이어 26.4%, 컴퓨터 25.3%, 인트라넷 5.7% 순이다. 녹화기는 2016년 72.5%로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2017년 60.6%로 11.9%나 감소했고 다시 2018년에는 3.1% 줄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DVD플레이어도 2015년 45.2%, 2016년 37.7%, 2017년 35.6%, 2018년 26.4%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인다. 노트북은 2015년, 2016년 각각 41.8%, 47.8%에서 2017년 55.3%로 급상승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9.7% 감소해 등락은 있지만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2-12〉 정보통신기기 보유와 이용률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노트북	61 (41.8)	66 (47.8)	73 (55.3)	40 (46.0)
녹화기	97 (66.4)	100 (72.5)	80 (60.6)	50 (57.5)
DVD플레이어	66 (45.2)	52 (37.7)	47 (35.6)	23 (26.4)
컴퓨터	40 (27.4)	30 (21.7)	35 (26.5)	22 (25.3)
인트라넷	15 (10.3)	11 (8.0)	7 (5.3)	5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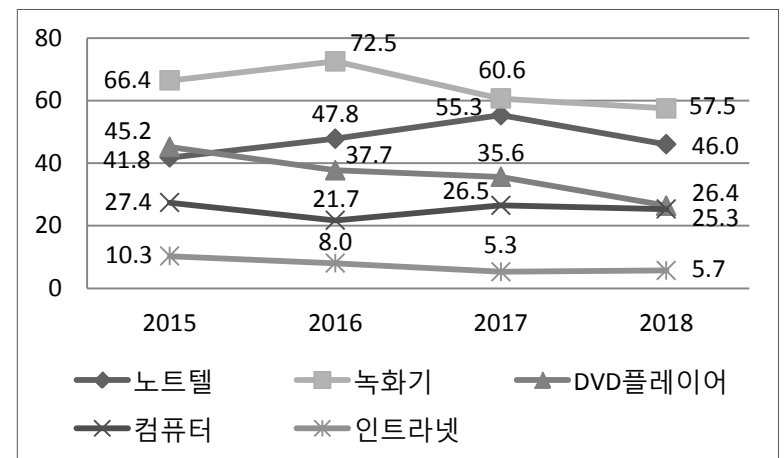
또한 외부세계의 문화와 관련된 영상녹화나 복사기능을 가진 재생 기기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외부세계가 북한 내부에 자본주의 문화를 양산하는 반동적인 출판물들과 색정적이고 부패한 영화, 음악들을 대대적으로 들어려고 하는데 그 수단 하나가 바

로 정보통신기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통신기술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즘 과학기술 강국을 주장하는 북한이 정보화와 정보통제라는 딜레마에 여전히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보급률은 2015년 27.4%, 2016년 21.7%, 2017년 26.5%에 이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 조사에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한 경험에만 한정되어 있어 북한의 공공기관, 학교, 대학 등의 국영기관의 컴퓨터 사용률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2-14〉 정보통신기기 보유와 이용률

(단위: %)



북한 내부의 통합정보시스템인 인트라넷은 근거리통신망으로 활용된다. 외부세계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사상교육의 내용이나, 신문, 국영상점의 상품소개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인트라넷 사용률에 대한 응답은 2015년 10.3%에서 2016년 8.0%로 전년도 대비 2.3% 감소했고 2017년

에는 전년도 대비 2.7% 떨어져 5.3%, 2018년 5.7%로 전년도보다 0.4% 증가했다.

인터넷 이용장소를 공공기관, 민간시설, 본인의 집, 친구나 친척의 집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본인의 집과 도서관, 학교, 직장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본인의 집 사용자가 5명(100%)로 2015년 공공기관 8명(95.5%), 민간시설 1명(0.7%), 본인의 집 4명(2.7%), 친구의 집 1명(0.7%)에서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업시설을 포함한 민간시설과 이웃/친구/친척의 집에서 사용자가 0%로 조사되어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북한주민이 공공기관과 본인의 집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3〉 인터넷 사용장소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공공기관	8 (5.5)	7 (43.8)	3 (23.1)	2 (40.0)
민간시설	1 (0.7)	1 (6.3)	0 (0.0)	0 (0.0)
본인의 집	4 (2.7)	0 (0.0)	3 (23.1)	3 (60.0)
이웃/친구/ 친척의 집	1 (0.7)	3 (18.8)	0 (0.0)	0 (0.0)

## 5. 평가와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데이터를 통해 북한 기층사회의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식주에서 양질의 불안정성이 전년보다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생활에서 양적 감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듯 보이나, 양질이 보장되는 음식을 섭취했다는 응답자가 감소하고 있고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답한 응답이 급증하였다. 특히 고기 섭취 횟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곡물의 양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강냉이만 섭취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는 몇 년간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다가 최근 들어 다시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생활 영역에서는 매년 새 옷을 구매하는 횟수가 감소하고 몇 년에 한 두벌, 또는 남한테 얻어 입는 횟수가 급증하였다. 가계소득 지출에서도 먹는 비용이 몇 년간의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의류 소비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북한의 국내총생산이 전년도보다 3.5% 감소해 1997년(-6.5%) 이후 최저치라고 밝힌 내용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지속되는 경제체제 속에서 표면상의 안정화마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둘째, 계층 간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주생활에서 국가공급이 북한 주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살림집 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사용률이 감소하고 연립주택 공급이 급증하면서 단독주택 사용률 역시 증가했다. 단독주택은 집을 직접 짓거나 주변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편법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증대하는 것은 주거환경의 양극화를 의미하며 동시에 이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됨을 암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률에서도 계층 간의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과거 인터넷 이용이 다양한 장소에서 접속되었으나 최근에는 본인의 집이나 공공기관에서만 사용되면서 전체 접속 사용자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사용이 특정 계층에게만 허용되는 한정된 정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격차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족 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과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남편에서 부인으로 이동되었던 가족 내 의사결정권이 점차 사회적 안정기를 맞으며 남편으로 선회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부인과 상의하거나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족 구성원 간 합리적 의사결정은 의식주 문제를 가족 단위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향후 가족 내의 의사결정 조사를 통해 시장화와 정보화의 역동성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부터 남녀 상호인식 변화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북한 사회변동 분석 범위를 더욱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제3장

시장화와  
경제개혁 인식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3장 시장화와 경제개혁 인식

### 1. 서론

2018년은 남북한에 가장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한반도 역사를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기술할지도 모른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극단적인 군사적 긴장상태로 몰아갔다. 그러나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군사적 모험은 극적으로 사라졌다.

2018년 4월 남북한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합의했다. 뒤를 이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2018년 9월 남북한 정상은 ‘평양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기념비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

냉전의 갈등을 끝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남북한과 북미 정상사이의 숨 가쁜 정치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 정책을 통해 북한경제 발전구상을 체계화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 완성’과 ‘경제건설 추진’을 선언했다. 핵 무력이 완성됐으니, 이제는 경제발전에 올인(all in)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에서 ‘경제건설 총집중로선’으로 극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발전전략은 군사력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병행전략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에서 비롯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북한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제재의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한 2017년 대외무역 실적은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내부경제개혁과 대외 경제제재가 교차하는 시점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한 경제분야 북한사회변동 조사는 통제 불가능한 제약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18년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조사가 가지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 출신 지역 편중문제 등 분석변수가 가지는 기존의 제약점과 더불어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평가와 분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sup>12</sup>

따라서 본 장은 주요 분석대상인 북한의 시장화, 경제개혁 요인과 인식을 중심으로 시계열적 추이와 각 영역별 특이점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다.

12\_ 2018년 조사는 특히 탈북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표본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도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2018년 조사 분석은 북한변화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각 분야별 결과는 변화추이를 중심으로 평가와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경제생활과 시장화

### 1) 생활수준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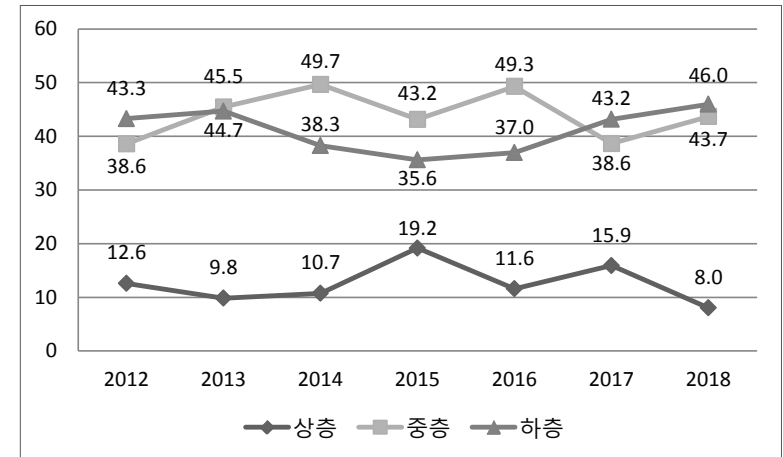
생활수준 인식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연도에 따른 생활수준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는 항목이다. 1994-1999년 기간 동안 즉, '고난의 행군'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각자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이 탈북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체로 12-13%의 상층과 88% 내외의 중/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부분은 2017-2018년 탈북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위계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더불어 상위계층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2018년 기간 동안의 조사결과는 중간계층 비중이 2010년 이후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1994-1999년과 비교해서 약 10%가 증가한 결과이다. 반면, 하위계층과 중간계층은 1994-1999년에 비해 각각 10% 이상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4-1999년 대비 2011-2018년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는 ① 중간계층의 증가(약 10%), ② 하위계층의 감소(약 10%), ③ 상위계층의 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2004년 기간 동안 고난의 행군이 종료되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장마당 설치, 2000년대 이후 꾸준히 강화된 시장화 현상 등의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더디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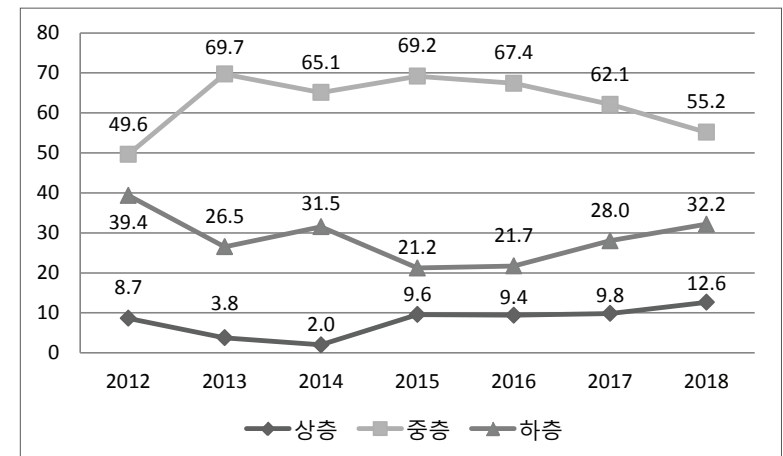
〈그림 3-1〉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평가대상연도 1994-1999)

(단위: %)



〈그림 3-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평가대상연도 2011-2018)

(단위: %)





## 2) 가족중 공식, 비공식 경제 활동자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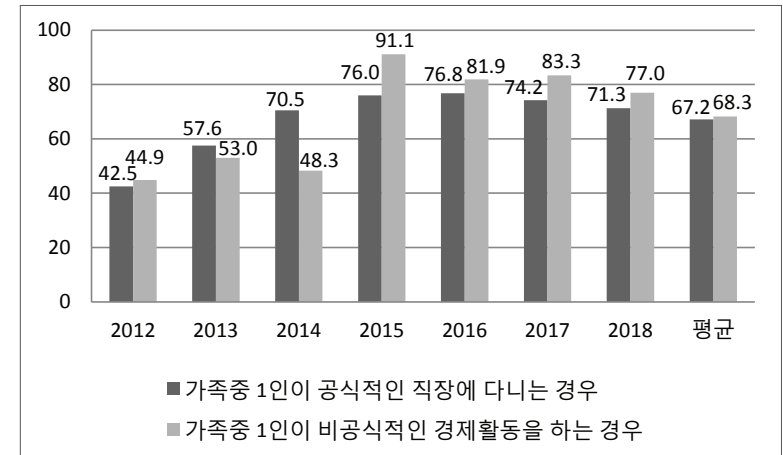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2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사결과 가족숫자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직장을 가진 1인과 비공식 돈벌이를 하는 가족이 각각 1인씩 분포하는 가정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sup>13</sup> 즉, 2018년 조사대상자의 가족 중 1인이 공식적인 직장에 종사하는 숫자와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숫자의 비중은 각각 71.3%와 77.0%이다.

2012년 조사 대상자의 경우, 공식/비공식 경제활동 비중이 각각 42.5%와 44.9%에서 2018년 현재 각각 71.3%와 77.0%로 약 30% 정도 규모로 비중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제조업의 경우 공식 직장의 생산을 정상화, 출근 등 제도적인 규율의 강화 등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둘째, 시장화의 영향 등으로 비공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공간이 확대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2012년에 비해 6년 동안 비교적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 가족 중 공식, 비공식 경제활동 분포

(단위: %)



동일한 조사에서 장사경험의 유무에 대한 결과값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2012-2018년 평균 61.3%가 장사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표 3-1〉 장사경험 유무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있다	69.8	74.4	69.8	76.7	68.8	69.7	60.9	61.3
없다	30.2	25.6	30.2	23.3	31.2	30.3	39.1	26.2

13\_2012-2018년 조사 대상자의 가족 숫자 분포(평균값)는 3명 미만 16.5%, 3명 32.8%, 4명 33.2%, 5명 12.3%, 6명 이상 3.6%

### 3) 공식 및 비공식 가족 총 수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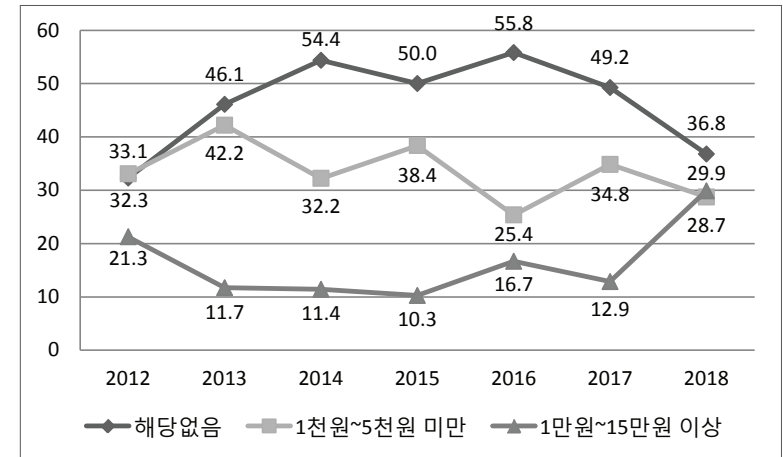
공식/비공식 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사결과 수입의 절대적인 규모는 낮은 수준이지만, 공식적인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혀 수입이 없는 직장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1만원~15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 역시 공식영역과 유사한 추세로, 1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가구는 증가하고,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가정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비공식 경제활동 소득자가 평균 50% 내외로 집계되는 현상은 급격한 시장화보다는 시장경제가 '그럭저럭' 유지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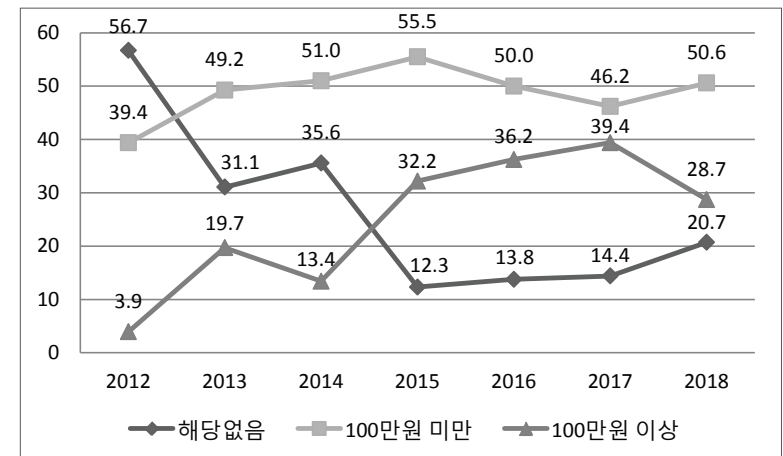
〈그림 3-4〉 공식적인 직장에서 가족의 총수입

(단위: %)



〈그림 3-5〉 장사 등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한 총수입

(단위: %)



#### 4) 주요 수입(소득)원

주요 수입원은 소매장사 비중이 가장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4</sup> 북한 시장 숫자의 증가 등 시장화 추세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원으로 소매장사 경험자의 감소 현상은 시장화 현상의 다양한 분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주요 수입원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소매장사 (시장 매대장사, 달리기, 행방 등)	36.1	38.1	31.5	24.0	21.5	14.2	11.4	25.8
개인 편의봉사 (이동 미용사, 전자제품 수리공, 집 수리공 등)	4.6	5.1	5.5	0.0	3.3	5.8	6.3	4.2
개인(임)가공 (의류, 신발, 가구 제작 등 가내 수공업)	1.9	4.2	3.1	2.1	0.0	2.5	6.3	2.7
식당, 상점 임대 운영	1.9	0.0	3.1	4.1	2.5	0.0	2.5	2.1
되거리장사 (차판장사, 도매장사)	10.2	5.9	15.7	11.6	22.3	11.7	7.6	12.5
외화벌이 계통 (수출 원천동원이나 대치물자 수입 등 포함)	10.2	11.9	6.3	13.7	8.3	10.8	8.9	10.1
돈장사	6.5	5.1	3.1	6.8	3.3	5.8	3.8	5.0

14 북한이탈주민 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 출신 지역 편중문제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변수의 추이 변화는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삿벌이 (가대기군, 소토지 임시 노력, 바다 임시노력 등)	3.7	10.2	7.9	2.1	6.6	7.5	19.0	7.4
해외 파견노력 근무 (벌목, 건설, 식당, 의료사업 등)	0.9	1.7	1.6	0.0	0.8	3.3	3.8	1.6
기타	22.2	16.1	21.3	23.3	31.4	37.5	29.1	25.6

소매장사, 되거리장사 비중의 축소는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지표로 평가가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삿벌이, 개인 임가공이 미약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을 매개로 한 상품의 단순 교환에서 개인의 기능과 노동을 판매하는 현상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초보적인 수준의 노동시장 등장 등 북한경제의 관찰 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표 3-3〉 개인 고용 경험 여부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평균
5명 미만	43.8	57.1	60.7	25.3	56.8	58.8	40.7
5명 이상-10명 미만	6.3	22.9	7.1	4.1	18.2	17.6	9.6
10명 이상-15명 미만	9.4	8.6	14.3	1.4	6.8	5.9	5.3
15명 이상-20명 미만	0.0	0.0	3.6	0.7	6.8	5.9	2.0
20명 이상	6.3	11.4	10.7	4.1	6.8	5.9	6.3

주. 조사대상자중 사적으로 개인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2년 23.6%, 2013년 29.7%, 2014년 23.2%, 2015년 34.9%, 2016년 35.5%, 2018년 20.3%.

노동시장의 분포는 5인 미만 사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10인 미만 사업장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기간은 12개월 미만이 전체의 약 40%로 집계되고, 201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년 미만의 고용기간을 고려하면 북한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미성숙 단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수입원으로는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밀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약초채취 등 개인농, 그리고 평양시내에 등장한 택시에 서 볼 수 있듯이 운전 관련 직업이 새로운 수입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 5) 소비 형태<sup>15</sup>

소비는 ① 식비, ② 의류비, ③ 교육비, ④ 저축, ⑤ 문화생활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식비는 2015년과 2017년에는 각각 24.7%와 23.5%의 가구가 생활비중 50%를 식비로 소비하고, 2018년에는 각각 17.2%의 가구가 30%와 50%의 생활비를 식비로 지출하고 있다.

생활비중 의류비 비중은 대체로 10-20% 비중을 나타내고, 15%의 가구가 약 30%의 의류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거비는 50%의 가구가 주거비 부담이 없었으며, 생활비중 주거비를 40% 이상 부담하는 가구는 7-8%(2016, 2017년)이며, 2018년 표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비 항목에서는 약 50%의 가구가 교육비 부담이 없으며(공교육),

<sup>15</sup> 소비 형태의 특정년도를 표기하지 않은 결과 값은 평균값을 의미한다.

생활비중 교육비를 10-20% 이상 부담하는 가구는 15-25%로 집계되었고, 20%이상 교육비를 부담하는 가구 비중은 2015년 17.8%, 2016년 21.0%, 2017년, 18.2%, 2018년 25.3%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북한 사회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양상과 함께 시장화를 통한 경제적 격차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3-4〉 사교육 종류 및 비중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음악(기악, 성악)	45.2	12.3	34.5	40.0	25.0	23.6
외국어(영, 중, 러 등)	12.9	7.5	20.7	7.5	41.7	11.2
컴퓨터	3.2	1.4	13.8	5.0	8.3	3.9
체육	9.7	1.4	0.0	10.0	16.7	4.3
무용	6.5	1.4	13.8	2.5	0.0	3.5
기타(수학 등)	19.4	2.1	13.8	22.5	8.3	8.9

저축성 소비형태는 약 50%이상의 가구가 저축을 한 푼도 하지 않으며, 평균 10%의 가구가 각각 소득의 10%, 20%, 30%를 각각 저축을 하고 있으며, 조사 이래 2018년 58.5%의 가구가 가장 낮은 저축률 기록했다.

약 60%의 가구가 문화생활을 위한 소비가 전혀 없었으며, 생활비(소득)의 10%를 소비하는 가구가 약 20%, 20%를 소비하는 가구가 약 10%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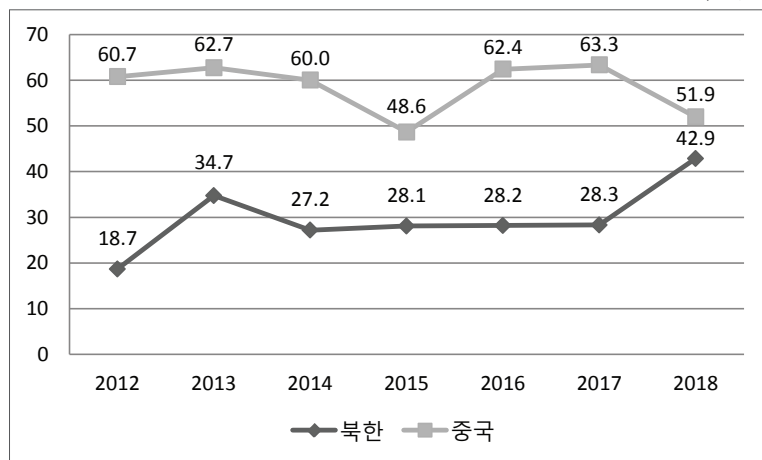
### 6) 물품 및 자재 조달

조사 이래 중국과 북한 물품의 평균 비중이 각각 58.5%, 29.1%로 집계되었는데, 중국산 비중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63.3%에서 51.9%로 11.4% 감소한 반면, 북한산 비중은 28.3%에서 42.9%로 14.6%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대북제재에 따른 중국산 물품의 수입 제한 영향, 둘째, 북한산 자재 및 물품의 품질 향상 등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3-6〉 물품 및 자재 조달처

(단위: %)



### 3. 경제개혁 인식

#### 1) 사경제활동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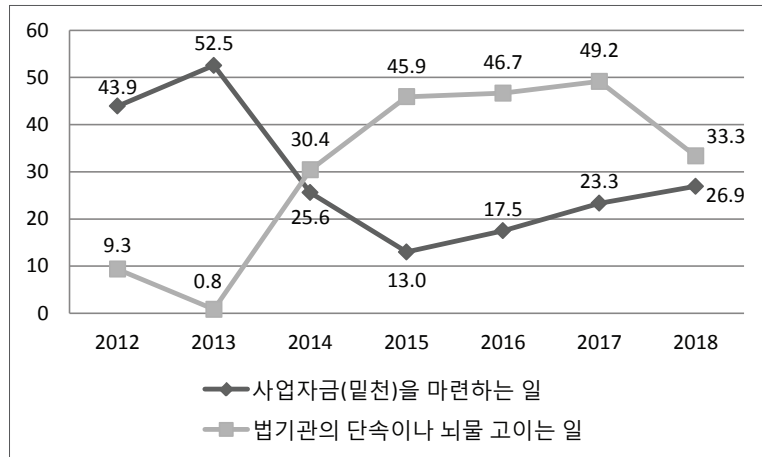
사경제활동의 최대 애로사항은 단속(31.6%)과 사업자금 확보(28.3%)로 나타났다.(평균값 기준) 2015년 이후 사업자금 부족이 증가하고, 단속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sup>16</sup> 특히 16%가 감소한 단속은 향후 지속적인 추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장화와 단속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 북한 체제의 성격변화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의 사경제활동 제약요인으로는 원자재 확보(9.6%), 열악한 전 기사정(8.5%)과 교통인프라(7.2%), 사업수완 부족(4.4%), 동종업종간의 경쟁(3.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공식직업과 병행해 특별이를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으로 시간을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sup>16</sup> 2순위 조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단속(29.2%)과 사업자금 확보(11.9%)가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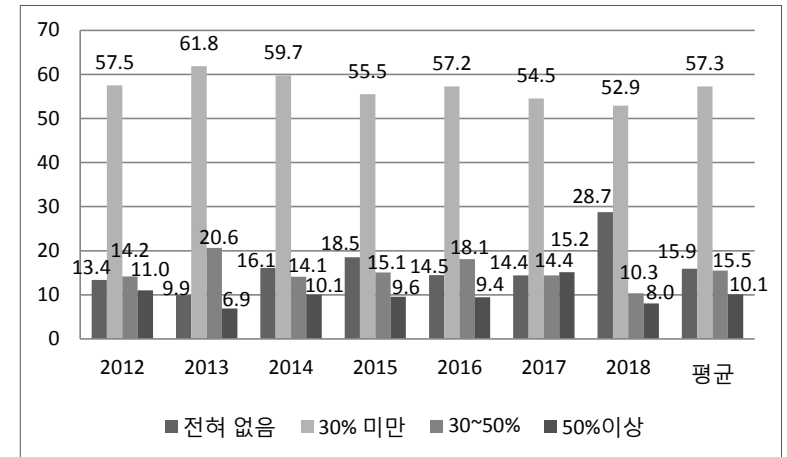
〈그림 3-7〉 사경제활동의 애로사항 (1순위)

(단위: %)



〈그림 3-8〉 총수입중 뇌물 제공 비중

(단위: %)



## 2) 뇌물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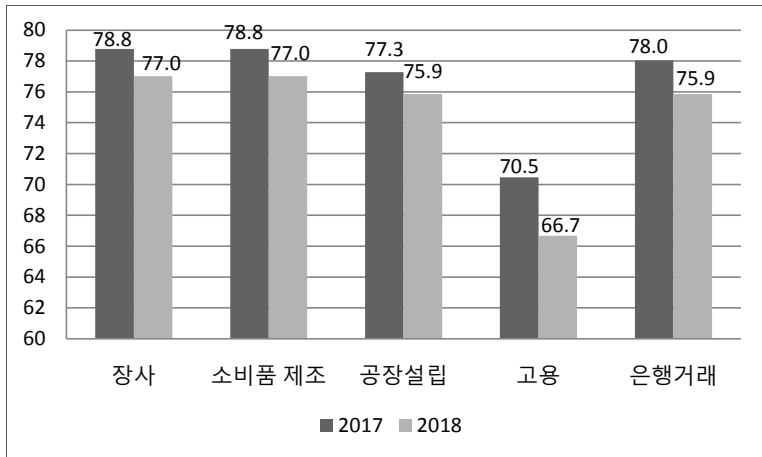
가구당 총 수입중 10-30%가 사경제활동을 위해 뇌물로 사용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28.7%가 뇌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특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① 조사 표본의 상대적 부족, ② 공권력의 상대적 안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3) 경제활동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항목에서는 ① 장사, ② 소비품제조, ③ 공장/기업소 설립, ④ 은행대출 등 거래, ⑤ 고용 순으로 매우 높은 수요가 집계되었다. 2017년부터 조사된 각 항목별 평균값이 약 70% 내외의 자유로운 경제시스템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시장화와 경쟁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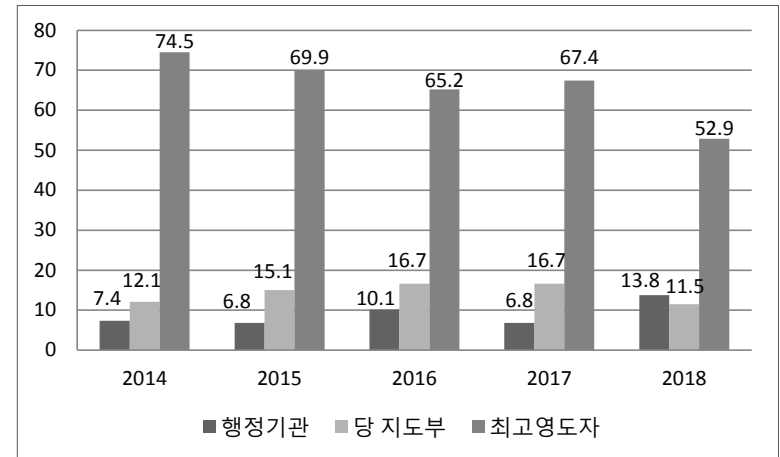
〈그림 3-9〉 경제활동 자유에 대한 분야별 수요

(단위: %)



〈그림 3-10〉 경제활동의 저해요인

(단위: %)



#### 4) 경제활동의 저해요인

최고지도자에 대한 반감은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행정기관 및 당 기관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는 추세다.<sup>17</sup> 특징적인 현상은 군부에 대한 불만이 매우 낮은 수준(1.8% 평균)인데, 인민들이 군의 도움을 받거나 공생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7\_2순위 결과에 따르면 당 지도부 44.2%, 내각 및 생산단위 관리자 35.1%, 최고지도자 5.8%로 나타났다.(2014-2018년 평균값 기준)

#### 5) 경제발전의 조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① 외국과 경협 34.2%, ② 자본주의 도입 29.9%, ③ 경제제도 개선 26.5%(평균값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대외경협, 자본주의 도입이라는 외부적 조건과 달리 내부 조건인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이유는 낮은 수준이지만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이 당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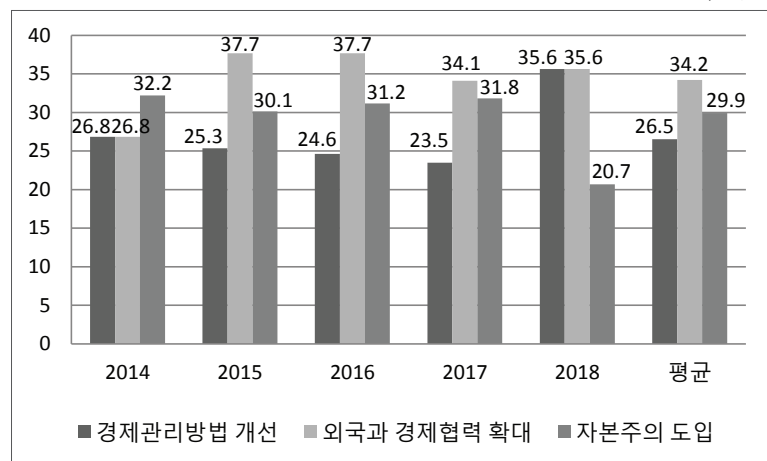
특히 2018년 조사 대상자중 35.5%가 ‘5.30조치’ 등 내부 시범사업을 동반한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자본주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지속적

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과학기술 발전(5.5% 평균)과 사상성 강화(2.9%)가 집계되었는데,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당국의 입장과 달리 인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아 보인다.

〈그림 3-11〉 경제발전 조건

(단위: %)



#### 4. 평가와 시사점

북한경제 환경에 대한 이탈주민들의 인식은 ‘불만과 기대감’이다. 즉 딜레마적 현실과 인식이 공존한다. 사경제활동에 기반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직장을 버릴 수 없다. 외국과의 경협과 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하면서도 북한 내부의 경제개혁에 기대감을 놓지 않는다.

2018년 경제분야의 북한사회 변동조사는 종전의 조사결과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단 지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특이점 즉 대표적인 변화를 꼽으라면 첫째, 주요 수입원의 변화가능성이다. 소매, 되거리 등 장사비중의 축소와 샅벌이, 개인 임가공 등 개인노동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을 매개로 한 상품의 단순 교환에서 개인의 기능과 노동을 판매하는 현상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발전을 위한 조건의 다양화이다. 외국과의 경협, 자본주의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가능성에서 북한 내부의 경제제도 개선을 통한 가능성이 추가된 것이다. ‘5.30조치’ 등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도상승은 비교적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이 당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18 김정은 시대의 경제환경 평가는 첫째, 완만한 성장과 대북제재의 영향에 따라 경기하락이다. 2012년 이후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환경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경제정책 개혁을 통해 완만한 실적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산업별 성장률 등 북한 경제 전반의 실적은 추정 data의 신뢰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현실화되는 환경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무역부문에 나타나고 있는 대북제재의 영향이다. 무역부문은 유엔의 대북제재 영향력을 data로 보여주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산업성장률과 경제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의 견조한 성장은 대북제재이후 북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 환경 및 성과에 대한 평가는 김일환,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개발 정책』, 통일교육원, 20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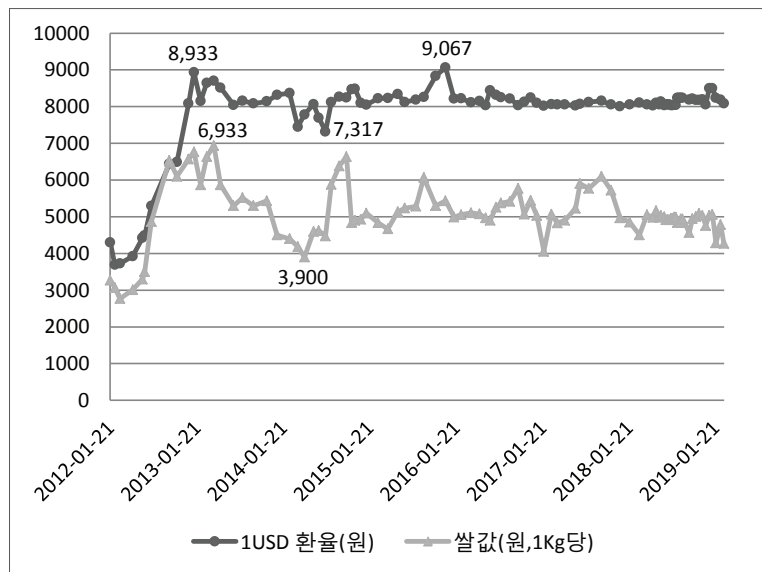



더딘 경제발전과 대북제재라는 딜레마적 환경에서도 북한의 시장 실물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장 환율(북한 원화/USD)과 시장 쌀 가격(북한 원화/1KG)은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의 지속성과 더불어 더디지만 상품공급의 확대가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환경이 북한경제를 ‘그럭저럭’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새로운 경제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대북제재의 지속 가능성, 극단적인 대중무역의존도,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추진의 일관성, 외자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우호적 관계개선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즐비하다.

〈그림 3-12〉 북한의 시장 달러환율, 쌀 가격 변화: 2012-2018

(단위: %)





제4장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4장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

### 1. 서론

이 장에서는 북한 내 사회보장의 실태와 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보장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한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시장화와 자본주의적 요소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시장 자본주의 요소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양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에도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북한의 사회보장체제는 사회주의 경제·노동체제의 부수적인 부분 정도로 여겨진다. 북한은 배급제와 노동의무제를 바탕으로 모든 주민의 생활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시스템은 매우 단순하며 경제-사회정책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반면 대부분의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은 시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을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 사회가 시장 요소를 확대할 경우

사회보장 제도 역시 다양한 형태로 도입·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국가에서나 모든 국민에 대해 충분한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데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선군노선으로 인해 북한 정부는 사회보장을 충분히 제공할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19</sup> 현재 북한 당국은 인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촉구하고 있으며, 과거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했던 보편적인 배급제를 거의 포기했을 뿐 아니라 이와 함께 무상의료 시스템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상의료의 구조적 체계는 여전히 유지하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sup>20</sup>, 소득보장 제도의 상당부분은 ‘계획’이 작동하지 않아서 형식적 제도로만 존재하고 그 의미를 상당히 상실했다<sup>21</sup>고 보고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경제협력 분야 뿐 아니라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남한의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제시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 2016년 조사부터 사회보장 실태 파악을 위한 문항들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북한에 거주할

19\_장용석·정은미·정근식·김경민, 『북한 사회변동 2017: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 95.

20\_이철수 외,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과도기 이중체제』(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p. 205-206.

21\_민기재·조성은·한경훈·김아람,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7), pp. 301-303.

때 받았던 사회보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본인 또는 가족의 노령연금(년로연금), 국가공로자연금(공훈연금), 폐질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수급경험을 조사하였다. 2017년 조사에서는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와 무상치료, 노령연금, 국가공로자연금, 폐질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등의 작동여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2018년에는 응답률이 낮은 소득보장 관련 질문을 제외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의료이용, 노인, 장애인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국가보장의 영역별 질문은 이전 질문과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북한 사회보장 제도의 실태를 무상의료와 취약계층 생활실태로 나누어 분석하고, 3절에서는 북한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를,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절에서 다루는 사회보장의 실태는 그나마 제도적 구성을 유지하는 무상치료를 좀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절에서 만족도 분석의 내용은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것과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이다.

## 2. 북한 사회보장 제도 실태

### 1) 북한의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 실태

북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 체계의 기본 틀로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도, 의사담당구역제도의 기본 요소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무상의료라는 핵심적인 요소가 역설적이게도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의 상품가치를 제거하여 부분적 시장화 이후 보건의료 약재, 물품,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체시켰다.<sup>22</sup> 결국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하락으로 주민들의 공공의료체계 이용은 줄어들고, 시장을 통한 의약품 구매의 증가, 이른바 뒷방 의사, 작대기 의사 등에 의한 비공식 의료행위의 증가, 민간요법을 통한 치료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결과도 이러한 시장화 상황을 뒷받침하는데, 북한 주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주된 대처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는 것(50.6%)을 응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는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 등 가장 말단의 의료 전달체계 이용(14.9%)이 높게 나타났다. 시·군·구역 인민병원의 이용(9.2%)과 민간요법의 활용(9.2%)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다른 연구결과들을 참고할 때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 등은 X-Ray 진단기기 정도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리 인민병원

22\_신희영 외, 「통일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 2).

이나 진료소 등을 통한 진료의 질은 질병·부상에 대한 조연 정도에 그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나마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진료사가 가능한 시·군·구 인민병원이나 도 단위 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받았다는 비율을 모두 합해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표 4-1〉 북한 주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대처방법 (2018년)

구분	빈도	%
호 담당 의사(준의)에게만 치료를 받았다.	55	5.7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13	14.9
시·군(구역)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8	9.2
도 단위 중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	2.3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었다.	44	50.6
정식의사는 아니지만 침놓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았다.	5	5.7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약초 등을 달여서 먹었다.	8	9.2
계	87	97.7

탈북 직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등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에 대해서는 32.2%가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시·군·구역 인민병원에 대해서도 34.5%가 동일한 상황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도 병원이나 중앙의 병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좀더 많았다.

이 항목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실은 탈북 직전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 자체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는 점이다. 리 인민병원·진료소조차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49.4%, 시·군·구역 인민병원 36.8%, 도나 중앙병원 64.4%로 나타나 공식적인 의료기관의 이용률 자체가 상당히 낮은 상태로 보인다.

〈표 4-2〉 북한 의료기관의 실태 (2018년)

(단위: 명, %)

구분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	시군(구역) 인민병원	도 혹은 중앙병원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1 (1.1%)	5 (5.7%)	5 (5.7%)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2 (2.3%)	3 (3.4%)	4 (4.6%)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11 (12.6%)	17 (19.5%)	10 (11.5%)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28 (32.2%)	30 (34.5%)	9 (10.3%)
이용한 경험이 없다.	43 (49.4%)	32 (36.8%)	56 (64.4%)
계	87 (100.0%)	87 (100.0%)	87 (100.0%)

## 2) 취약계층의 생활실태

북한은 노동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노동능력이 없는 인민<sup>23</sup>에게는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

23\_북한의 사회보장제는 근로자들이 연로하였거나 노동능력을 항구적으로 또는 오랜 기간 잃었을 때, 부양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그 유가족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기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노동법제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p. 239.

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소득보장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해서 급여가 중단되거나 간헐적으로 지급되었고, 이후 지급이 지속된 시기에도 실질 가치가 보잘 것 없는 수준으로 하락해서 지급 여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sup>24</sup> 또 국가의 소득보장은 공식 임금을 기준으로 제공되는데 이중적인 소득구조가 일상화될수록 공식 근로 소득에 기반한 소득보장의 의미는 더욱 하락한다.<sup>25</sup>

2017년 조사에서 소득보장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도 일상적으로 소득보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2018년에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활유지 방법을 노인과 장애인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노인들의 경우 55.2%가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아 생활한다고 응답하여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 가족부양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들도 시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한다는 응답도 31.0%로 나타나 노년기 사적 근로활동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4. 민기채·조성은·한경훈·김아람,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pp. 235-236.

25. 정은찬·김재현의 연구(2014)에서 북한 여성의 실질소득을 분석했을 때 근로소득과 자가소득(비공식 소득)을 더한 전체 소득 중 자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7%에 이를 정도로 비공식소득에 의한 생활이 일상화되고 있다.

〈표 4-3〉 북한 노인의 주된 생활유지 방법 (2018년)

구분	빈도	%
북한 정부가 지급하는 연로연금과 쌀 배급을 받아 생활한다.	3	3.4
노인들도 시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한다.	27	31.0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아 생활한다.	48	55.2
주변에 아는 노인이 없어서 잘 모른다.	7	8.0
계	87	100.0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족부양(41.4%)과 시장에서 일해서 생활하는 비율(36.8%)이 높게 나타났고, 시설을 통해 생활한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주변에 장애인이 없어서 잘 모른다는 비율도 19.5%로 나타나 장애인 인정과 지원이 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4-4〉 북한 장애인의 주된 생활유지 방법 (2018년)

구분	빈도	%
북한 정부가 지급하는 폐질연금과 쌀 배급을 받아 생활한다.	1	1.1
장애인들도 시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한다.	32	36.8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아 생활한다.	36	41.4
별도의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한다	1	1.1
주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없어서 잘 모른다.	17	19.5
계	87	100.0

이상과 같이 노인, 장애인 모두 국가의 급여로 생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극히 적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북한 헌법의 규정과 같이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에 대한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는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 3. 북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 1)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국가배급제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의 이른바 ‘인민시책’ 체제들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악의 경제난이 어느 정도 극복된 이후에도 1980년대 이전과 같은 국가사회주의체제는 회복되지 않았고, 시장화와 계층화 현상은 가속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같은 안정적인 국가서비스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 2016-2018년의 사회보장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각각 52.2%, 47.7%, 48.3%에 이를 정도로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책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은 2016-2018년 전체 응답자의 10.8%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복지시장화와 사경제 활동을 통한 북한주민의 이른바 ‘셀프복지’가 경제난 이후 장기간 지속되

었고, 현재 일부 사회보장 급여가 지급되지만 현실적인 보장수준이 매우 낮아 이를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다만 다소 흥미롭게 관찰해야 할 점은 ‘만족한다(매우 만족하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2016년 7.5%에서 2017년 10.0%, 2018년 17.2%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변화는 아니지만 추후 조사에서도 상승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북한 내 사회보장 체제 변화의 새로운 모티브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2018년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급격히 줄면서 만족과 불만족 모두 높아져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층들의 배경과 답변의 근거에 대한 추적조사가 요구된다.

〈표 4-5〉 북한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6년	8 (6.0)	2 (1.5)	43 (32.1)	11 (8.2)	70 (52.2)	134 (100.0)	2.01
2017년	7 (5.4)	6 (4.6)	43 (33.1)	12 (9.2)	62 (47.7)	130 (100.0)	2.11
2018년	7 (8.0)	8 (9.2)	16 (18.4)	14 (16.1)	42 (48.3)	87 (100.0)	2.13

## 2)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사회보장의 영역별 만족도에서 먼저 무상치료를 살펴보면,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40.2%로 가장 높고 '조금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20.7%로 부정적인 의견이 60.9%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16.1%로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약간 높지만 전체적으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앞의 사회보장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양극화의 경향이 보인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볼 때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57.1%에서 60.9%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12.2%에서 16.1%로 양 극단으로의 응답이 모두 증가하였다.

북한경제의 완전한 회복세가 반영되어 최근 북한보건의료제도의 경우 일부 지역, 계층 별로 부분적으로 정상화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대다수 북한 일반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들을 보면 여전히 일선 병원의약품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개인이 시장에서 의약품이나 검사재료 등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북한식 의약분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표 4-6〉 북한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7년	8 (6.1)	8 (6.1)	40 (30.5)	15 (11.5)	60 (45.8)	131 (100.0)	2.15
2018년	4 (4.6)	10 (11.5)	20 (23.0)	18 (20.7)	35 (40.2)	87 (100.0)	2.20

## 3)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는데, 2017년 조사에서 보통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하면 만족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매우 불만족한다, 조금 불만족한다) 응답비율은 58.6%인 반면, 긍정적인(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응답비율은 17.2%에 그치고 있어 교육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무상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무상교육, 실질적 유상교육'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소비실태 분석에서 생활비의 상당비율을 사교육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무상교육에 대한 불만을 높인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무상·의무교육 제도를 북한식 사회주의의 가장 우월한 제도의 하나로 선전해 왔지만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국가의 역할은 매우 축소된 형태로 작동하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크게 손상된 상태이다. 이에 현실에서는 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부모의 경제적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기 원하고 이를 위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sup>26</sup>

무상교육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는 계층별, 지역별, 환경별, 소득별

26\_소성규·박희진·장인숙·정병화·정은미, 『통일대비 복지육구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p. 76-77.



로 그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 자료가 좀 더 축적되면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 주민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연구가 될 것이다.

〈표 4-7〉 북한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7년	13 (9.8)	18 (13.6)	46 (34.8)	21 (15.9)	34 (25.8)	132 (100.0)	2.66
2018년	5 (5.7)	10 (11.5)	21 (24.1)	15 (17.2)	36 (41.4)	87 (100.0)	2.23

#### 4)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

마지막으로 무상보육을 살펴보면,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보면,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는데, 2017년 조사에서 보통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하면 만족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매우 불만족한다, 조금 불만족한다) 응답비율은 55.1%인 반면, 긍정적인(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응답비율은 13.8%에 그치고 있어 보육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의 경우 무상보육은 무상교육에 비해 중립적인 응답이 더 높았었는데 2018년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크게 늘었다.

무상보육 역시 사실상의 유상화가 장기간 진행되어 이로 인해 빈곤

층은 비공식적인 보육료를 부담스러워하고, 부유층은 탁아소와 유치원의 서비스 내용 불만으로 부분적으로 ‘자가보육’ 추구하고 있다는 증인들이 무상보육에 대한 불만 증가를 설명해준다. 30대 젊은 북한세대의 경우 사경제활동을 통한 소득활동, 육아활동, 가사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보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이들의 소득활동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각 개별 북한주민이 사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보육료부담 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성향인 반면 이와 반대로 사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보육료부담 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 역시 자료가 좀 더 축적되면 정교한 분석을 통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표 4-8〉 북한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7년	7 (5.3)	13 (9.8)	58 (43.9)	22 (16.7)	32 (24.2)	132 (100.0)	2.55
2018년	6 (6.9)	6 (6.9)	27 (31.0)	11 (12.6)	37 (42.5)	87 (100.0)	2.23

### 5) 각 영역별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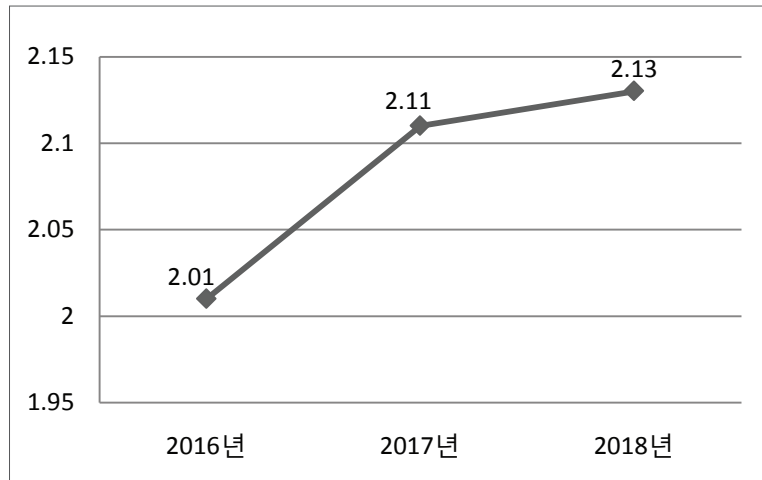
각 영역별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씩 증가한 반면,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9〉 각 영역별 만족도 비교

구분	사회보장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2016년	2.01	-	-	-
2017년	2.11	2.15	2.66	2.55
2018년	2.13	2.20	2.23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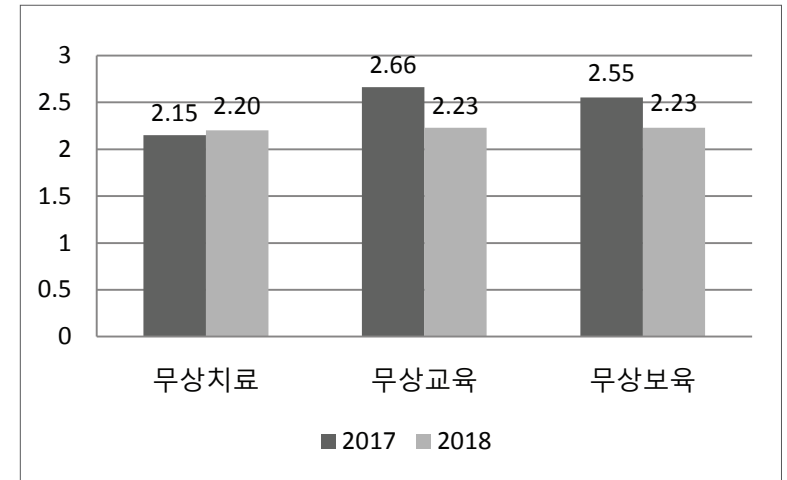
\*주: 5점 만점의 동일한 응답항목으로 측정된 결과임

〈그림 4-1〉 사회보장 전반적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영역별 비교에서 무상치료의 만족도가 거의 변화 없는데 비해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의 만족도 하락은 자녀세대에 대한 투자와 높은 교육열에 비해 국가의 교육·보육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결과라고 추정된다.

〈그림 4-2〉 영역별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 4. 평가와 시사점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는 보편적인 배급제 붕괴와 함께 무상의료와 소득보장 시스템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의 결과 역시 이러한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공공 의료시스템의 이용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에도 못 미쳤고,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북한이 자랑하던 인민시책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로 볼 때 무상교육,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사회보장을 넓은 범위의 노동시책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모든 인민들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배급제를 비롯한 국가 공급제와 국가사회보험-국가사회보장을 통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시장화는 공식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비공식 노동을 통한 생활유지 방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공식노동에 기반한 사회보장 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보장의 의미가 침식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향후 시장화된 북한사회는 새로운 사회보장 체제로의 전환이 없이는 증폭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견디기 힘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장애인, 여성, 노인 등)의 현대적 법제화의 흐름이 사회보험, 사회보장에까지 확산될 것인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한의 이질성은 정치·사회구조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

의 질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변화해왔고, 특히 북한 주민의 인구-건강문제를 야기하여 인구의 질을 크게 하락시켰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의 속도에 발맞추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남쪽의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보건 의료를 비롯한 사회보장 체제의 전반적 현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현대적 사회정책에 도입·확대에 대해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제5장  
총론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5장 총론

서론에서 전술한 것과 같이,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을 나온 지 1년 미만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북한에 있었을 때의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이에 따라 2018년의 조사결과에 대한 대상은 2017년 시점의 북한사회가 된다. 따라서 2018년에 일어났던 한반도 안팎의 주요 사건과 상황들은 이번 2018년 북한사회변동 조사 결과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2018 북한사회변동 조사의 결과를 볼 때 전년도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데, 2017년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어려운 상태인 가운데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미미하게나마 계층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2장의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에서 식생활 부분을 보면 양적인 부분에서의 수준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으나, 곡물 비율과 고기 섭취라는 질적인 부분에서의 수준은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상황의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식생활 뿐 아니라 의생활 실태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의복의 구매횟수 자체도 줄어들고 있으며, 구매한

의복의 생산지를 묻는 질문에 이전까지 상당한 비율로 나타났던 중국산이나 증가추세이던 남한산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주생활에 대한 조사에서는 2015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아파트 거주자가 큰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립주택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단독주택 사용자가 늘어나고 국가에서 배정받거나 구매하지 않고 직접 집을 지었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미세하게나마 계층에 따른 거주 패턴의 다양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같은 장에서 다루고 있는 가계 전반의 소비와 저축 역시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자녀교육과 관계된 지출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이러한 추정에 힘을 보태는 정보일 수 있다.

시장화와 경제개혁 인식을 다루고 있는 3장에서는 공식과 비공식 부문 양측의 경제활동 비중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가구당 경제활동 종사인원의 수가 평균 2명인 것을 감안할 때, 한명은 공식 경제활동, 다른 한명은 비공식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가구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장사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그렇다’는 답변은 전년도에 비해 8.8%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체 60%를 넘는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내 시장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수입원으로서의 장사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소매장사의 수익률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다고 여겨지는

산별이가수입원으로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북한에서의 시장화가 단순한 물물교환을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개혁 인식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점은,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에 대한 응답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반감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행정기관 및 당 기관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군부에 대한 불만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북한주민들이 군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혹은 공생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손꼽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외국과의 경험과 자본주의 도입이 상위를 차지했고 경제제도 개선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북한 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제발전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게 드러나서, 일반 북한 주민들의 체감과 당국의 정책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극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장은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체제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르게 사회주의 경제-노동체제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져 시행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다양화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는 독립적인 주민복지정책보다는 경제-사회정책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2018 북한 사회변동 조사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물론, 탈북이전 3년간 공식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강하게 작동해야 할 취약층에 대한 문항의 답변 결과 역시 이들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제도가 매우 미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인의 경우 55.2%가 가족들의 부양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장애인의 경우도 국가의 급여로 생활하기보다 가족들의 부양에 기대거나 시장에서 스스로 일해서 생활한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런 질문들은 본인의 경험이라기보다 주변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에 기반한 탈북자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답변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과 같은 사회주의 하의 국가보장제도는 1990년대 이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사적인 영역에서 담보해낼 만큼 시장화가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태이다. 대도시와 상위 계층에서는 보건의료제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평가와 비교할 때, 일반 주민,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중하위계층에게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 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다고 볼 수 있다.

의료와 더불어 국가사회보장의 중요한 부분인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41.4%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생활비 중 사교육 지출비용의 증가와 맞물려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무상보육의 만족도 역시 중립적인 응답이 높았던 전년도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 55.1%로 증가했다.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에 비해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지며 가시화되는 것은, 국가주도의 교육과 보육의 질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치가 현실보다 높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018 북한사회변동 조사를 통해 전년도와 유사하게 확인되는 바는 국가주도의 경제체제와 개발이 효율성과 현실성이라는 면에서 하락세에 들어서면서 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정책들도 함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체제 계획경제가 주도적이던 사회에서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시장화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국가주도의 공식부문이 힘을 잃고 있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를 따라잡을 사적부문이 활성화될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18년은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의 기회를 엿볼 수 있었던 중요한 해였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당장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해도 이전과는 다른 관계의 구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사건들로 점철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북한 내부의 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으나, 가시적인 결과로 확인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설문지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18 북한사회변동 설문조사

NO.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17년에 귀하께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등에 대해 경험하셨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는 2017년에 북한에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 중 만18세 이상인 분들이 참여하게 되며, 약 15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멈출 수 있으며, 도중 작성하신 설문지는 폐기 처리됩니다.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하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북한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정치외교학부 임경훈 교수이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어떤 개인 정보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이 연구 참여시 사례비로 3만 5천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시 정동준 선임연구원(02-880-8866)에게, 참여자의 권리를 문의할 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2-880-515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듣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합니다'라고 자필서명 해 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5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합니다'라고 자필서명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북한에서 살 때'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1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생활했던 모습 중 해당 사항에 ○ 또는 √로 표시해주세요.

먹는 문제	(가) 하루 몇 끼를 식사했습니까? ① 하루 세 끼 이상 ② 하루 두 끼 ③ 하루 한 끼 ④ 한끼도 못먹을 때가 많았다.	(나) 식사를 할 때 입쌀과 강냉이를 어떤 비율로 섞어 드셨습니까? ①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 ② 입쌀 위주로 강냉이를 섞어 먹었다. ③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어 먹었다. ④ 강냉이 위주로 입쌀을 섞어 먹었다. ⑤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	(다)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① 거의 매일 먹었다. ②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④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⑤ 먹어본 적이 없다.
입는 문제	(라) 옷을 얼마나 자주 사 입으셨습니까? ①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 ② 일년에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 ③ 몇 년에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 ④ 직접 사 입지 못하고 남이 입던 옷을 얻어 입었다. ⑤ 살 필요가 없었다.	(마) 주로 입는 옷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까? ① 북한산 ② 중국산 ③ 남한산 ④ 일본산 ⑤ 러시아산 ⑥ 기타 외국산	(바) 주로 입는 옷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① 시장(또는 정마당) ② 국영상점 ③ 직매점 ④ 백화점 ⑤ 본인 또는 친척이 외국에서 직접 구입 ⑥ 국가에서 선물 또는 무상배급 받음
살림집 문제	(사) 어떤 형태의 살림집에서 사셨습니까? ① 아파트 ② 하모니카집(연립주택) ③ 독집 ④ 기타( )	(아) 거주하는 살림집은 어떻게 장만했습니까? ① 국가에서 배정받음 ② 내가 돈 주고 샀음(→ ②-1로) ③ 내가 직접 지었음 ④ 조상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음 ⑤ 친척이나 주변 사람한테 받음  ②-1 집을 산 시기:    년	(자) 돈이 많이 있다면 제일 먼저 살림집의 무엇을 바꾸고 싶었습니까? ① 살림집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었다. ② 가구, 벽지, 장판 등 살림집 내부를 좋게 바꾸고 싶었다. ③ 위생실(화장실이나 목욕실)을 만들거나 고치고 싶었다. ④ 난방이나 취사 방식을 바꾸고 싶었다. ⑤ 수도 시설을 고치고 싶었다. ⑥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보·통신 환경	(차) 직접 소유하여 사용했던 제품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집전화 ② 손전화 ③ 컴퓨터 ④ 노트북 ⑤ 녹화기 ⑥ DVD 플레이어(씨디알 재생기계)	(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있다 (→ ①-1로) ② 없다	①-1 주로 어디서 인터넷을 이용하셨습니까? (하나만 선택) ①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직장) ② 민간시설 (상업시설 포함) ③ 본인의 집 ④ 이웃, 친구, 친척의 집

**문1-1**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남한산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1-A로)
- ② 없다. (→ 문1-2로)

**문1-1-A**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어떤 남한산 제품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많이 사용해 본 순서대로 2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① 의류
- ② 식품류
- ③ 잡화(화장품, 신발, 시계, 귀금속 등)
- ④ 가전제품(TV, 라디오, 녹화기 등)
- ⑤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1-2** 귀하는 북한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귀댁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 ②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

- ③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 ④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문1-3** 귀하는 북한에서 살 때, 물건을 구입한 후 물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구입한 곳에 가서 돈으로 돌려 받은 적이 있다.
- ② 구입한 곳에 가서 물건을 바꾼 적이 있다.
- ③ 물건을 판 사람을 해당 기관에 고발한 적이 있다.
- ④ 불만이 있어도 참았다.

**문2**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북한주민의 계층 비중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층, 중층, 하층의 총 합이 100%가 되도록 적어주세요.)

상층(            %),  
중층(            %),  
하층(            %)

**문3**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도, 가장 못사는 도를 하나씩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평안남도	② 평안북도
③ 함경남도	④ 함경북도
⑤ 자강도	⑥ 양강도
⑦ 황해남도	⑧ 황해북도
⑨ 강원도	

(가) 가장 잘 사는 도 (            )  
(나) 가장 못 사는 도 (            )

**문3-1** 그럼, 평양을 제외하고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시, 가장 못사는 시를 하나씩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신의주	② 청진	③ 라선
④ 혜산	⑤ 원산	⑥ 남포
⑦ 평성	⑧ 사리원	⑨ 개성

(가) 가장 잘 사는 시 (            )  
(나) 가장 못 사는 시 (            )

**문4**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산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잘사는 순서대로 2개를 골라 해당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
| ① 중앙당 간부                  |
| ② 지방당 간부                  |
| ③ 법기관(보위부, 안전부, 검찰 기관) 간부 |
| ④ 인민위원회 간부                |
| ⑤ 전문직(의사, 교수, 기술자 등)      |
| ⑥ 외화벌이                    |
| ⑦ 군관                      |
| ⑧ 시장 상인(장사)               |
| ⑨ 기업소·공장 간부               |
| ⑩ 기업소·공장 노동자              |
| ⑪ 농장 관리일꾼                 |
| ⑫ 농장원                     |

(가) 가장 잘 사는 직업  
1순위(            ), 2순위(            )  
(나) 중간 정도 사는 직업  
1순위(            ), 2순위(            )  
(다) 가장 못 사는 직업  
1순위(            ), 2순위(            )

**문5** 귀하는 현재 북한에서 부자는 왜 부자고,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세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하나씩 적어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정치사상성의 차이 때문에
- ②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 ③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에
- ④ 가족관계(친척 포함) 때문에
- ⑤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때문에
- ⑥ 사는 지역의 차이 때문에
- ⑦ 개인 성격 또는 자기 노력의 차이 때문에
- ⑧ 출신성분의 차이 때문에
- ⑨ 운수소관(자기 팔자 때문에)

**문6**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일상에서 가장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를 한 개만 골라 ○ 또는 √로 표시해 주세요.

- ① 돈벌어야 하는 걱정
- ②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 ③ 보안원/보위부 각종 단속(손전화, 탈북, 마약, 비사검열 등)
- ④ 조직생활

- ⑤ 출세
- ⑥ 자녀 교육
- ⑦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7**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남편과 부인 중 누가 주로 결정했습니까?

- ①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 ②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하였다
- ③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 ④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문8**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의 세 시기에 각각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 나 √로 표시해 주세요.

(가) 1994년~ 1999년	(나) 2000년~ 2004년	(다) 2005~ 2010년	(라) 2011년~ 탈북 전
① 상층	① 상층	① 상층	① 상층
② 중층	② 중층	② 중층	② 중층
③ 하층	③ 하층	③ 하층	③ 하층

**문9**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직장에 나가고 있었고 국가로부터 받은 생활비의 총합은 북한돈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가족 총수는 \_\_\_명이고 그 중 \_\_\_명이 직장을 나가 월 평균 총 \_\_\_\_\_원을 벌었다.

**문10**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장사를 하거나 다른 부업(더벌이)을 했고, 그로부터 벌어들인 총 수입이 북한돈으로 얼마였습니까?  
(※ 만일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 아무도 장사나 다른 부업을 한 사람이 없었으면 0원 이라고 써주세요.)

가족 총수는 \_\_\_명이고 그 중 \_\_\_명이 장사나 부업으로 월 평균 총 \_\_\_\_\_원을 벌었다.

**문11**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월평균 수입 중에서 아래 제시된 것들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율로 적어주세요.  
(※ 총 100%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숫자로 적어주세요.)

\* 예시: 총합: 100%  
① 먹는 것 (15%) ② 입는 것 (10%)  
③ 살림집 (20%) ④ 자녀교육 (10%)  
⑤ 저축 (30%) ⑥ 문화생활 (10%)  
⑦ 기타 (5%)

① 먹는 것 (            ) ② 입는 것 (            )  
③ 살림집 (            ) ④ 자녀교육 (            )  
⑤ 저축 (            ) ⑥ 문화생활 (            )  
⑦ 기타 (            ) ☞위에 제시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한 액수의 비율을 써주세요.

**문11-1** 귀하는 북한에 살 때 자녀에게 사교육(개인강습)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1-2로)
- ② 없다. (→ 문12로)

**문11-2** 귀하는 북한에 살 때 자녀에게 어떤 사교육(개인강습)을 시키셨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많이 시켜본 순서대로 2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음악(악기 연주, 성악 등)
- ② 외국어(영어, 중국어, 러시아 등)
- ③ 컴퓨터
- ④ 체육
- ⑤ 무용
- ⑥ 기타 학교과목(수학 등)

**문12**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벌어들이는 전체 수입 중에서 각종 뇌물로 고인 액수는 얼마나 차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이하 ② 20%이하 ③ 30% 이하
- ④ 40%이하 ⑤ 50%이하 ⑥ 50% 이상
- ⑦ 전혀 없음

**문13**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한 개를 골라 ○ 또는 √로 표시해주세요.

(※ 위의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문18번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 ① 소매장사(시장 매대장사, 달리기, 행방 등)
- ② 개인 편의봉사(이동 마용사, 전자제품 수리공, 집 수리공 등)
- ③ 개인 (임)가공(의류, 신발, 가구 제작 등 가내 수공업)
- ④ 식당, 상점 임대 운영
- ⑤ 되거리장사(차판장사, 도매장사)
- ⑥ 외화벌이 계통(수출 원천동원이나 대치물자 수입 등 포함)
- ⑦ 돈장사
- ⑧ 샅벌이(가대기군, 소토지 임시노력, 바다 임시노력 등)
- ⑨ 해외 파견노력 근무(벌목, 건설, 식당, 의료사업 등)

⑩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14** 위의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문15** 그렇다면, 장사 물건이나 사업용 원료, 자재는 주로 어느 나라 것이었습니까?

- ① 북한 ② 중국
- ③ 남한 ④ 러시아
- ⑤ 일본 ⑥ 기타 나라들

**문16** 위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자신의 사업 수완 부족
- ② 사업자금(밀천)을 마련하는 일

- ③ 장사 물건이나 원료, 자재를 확보하는 일
- ④ 같은 업종의 경쟁자들과나 수입상품과의 판매 경쟁
- ⑤ 한심한 도로, 철도 사정
- ⑥ 한심한 전기 사정
- ⑦ 법기관의 단속이나 뇌물 고이는 일
- ⑧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17** 위의 일을 할 때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18**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②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품을 만들어 팔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③ 누구나 자유롭게 공장이나 기업소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④ 누구나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⑤ 개인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문19**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근로자(평범한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
- ② 관리자(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등)
- ③ 내각(총리, 상, 국가계획위원장 등)
- ④ 당 지도부
- ⑤ 군부
- ⑥ 최고영도자
- ⑦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2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북한이 잘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사상성(수령·당에 대한 충실성, 자력갱생정신 등)강화
- ② 과학기술 발전
- ③ 경제관리방법 개선
- ④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 ⑤ 자본주의 도입
- ⑥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21**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본인이나 가족이 몸이 아픈 경우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① 호 담당 의사(준의)에게만 치료를 받았다.
- ②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 ③ 시·군 (구역)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④ 도 단위 중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 ⑤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었다.

- ⑥ 정식의사는 아니지만 침놓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았다.
- ⑦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약초 등을 달여서 먹었다.

**문22**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전에 이용한 의료기관은 어떻습니까? (북한을 나올 때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이 없다'를 선택해 주세요)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
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
시·군 (구역) 인민병원
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

도 중앙병원
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

**문23**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중에 노인이 되신 분이 북한에서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 ① 북한 정부가 지급하는 연로연금과 쌀 배급을 받아 생활한다. (→ 문23-1로)
- ② 노인들도 시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며 생활한다.
- ③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아 생활한다.
- ④ 주변에 아는 노인이 없어서 잘 모른다.

**문23-1**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의 노인이 국가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래에 써주세요.

- ① 식량(쌀) 1일 \_\_\_\_\_g.
- ② 현금(돈) 1개월 \_\_\_\_\_원 (북한 원화 기준)

**문24**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족이나 이웃 중에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사고, 또는 일하다가 다쳐서 일할 수 없게 된 분이 북한에서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 ① 북한 정부가 지급하는 폐질연금과 쌀 배급을 받아 생활한다. (→ 문24-1로)
- ② 장애인들도 시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며 생활한다.
- ③ 가족들로부터 부양을 받아 생활한다.
- ④ 별도의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한다.
- ⑤ 주변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이 없어서 잘 모른다.

**문24-1**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의 장애인이나 다쳐서 일할 수 없게 된 분이 국가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래에 써주세요.

- ① 식량(쌀) 1일 \_\_\_\_\_g.
- ② 현금(돈) 1개월 \_\_\_\_\_원 (북한 원화 기준)

**문25**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사회보장,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만족 한다	조금 만족 한다	보통 이다	조금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① 사회보장	1	2	3	4	5
② 무상치료	1	2	3	4	5
③ 무상교육	1	2	3	4	5
④ 무상보육	1	2	3	4	5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Q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            년)

**Q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            년    월)

**Q4.** 북한에서 공식적인 직업은 무엇 이셨습니까?

- ① 노동자  
② 농민  
③ 사무원  
④ 피부양자(질병으로 노동 불가능, 연로보장 등)  
⑤ 학생

- ⑥ 군인  
⑦ 가정부인  
⑧ 무직 및 기타

**Q5.**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다  
②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③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④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⑤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5

## 북한사회변동 2018

**발행** 2019. 03. 22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임경훈  
**저자** 천경효·김일한·조성은·최경희·임경훈·조용신  
**주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 880-4052-4, 874-7304  
**팩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 (02-722-7123)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

북한사회변동 2018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저자: 천경효·김일한·조성은·최경희·임경훈·조용신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45)  
권말부록: 설문지  
ISBN 979-11-966513-0-5 93340 : 비매품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